



요리와 이야기



쌀 | 밥 짓기

농하고 사회로운 예술실험

쌀 | 밥 짓기

쌀-밥 짓기

농하고 사회로운 예술실험

농하고 사회로운 예술실험

쌀-밥 짓기

2024년 2월 20일 발행_

지은이 라라(김진아), 맑똥(김영대), 사군, 이산(정문성), 이선, 이하영_

펴낸곳 요리와 이야기_ 사진|삽화 강철 CHEOLstyle_ 편집디자인 이산_

교정 김성중_ 인쇄제작 파종모종_ 제작지원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팀

라라 맑똥 사군 이산 이선 이하영

이 책은 2023 창의예술교육랩 지원사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친환경지류 마분지와 그린라이트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책의 판권은 <요리와 이야기>에 있으므로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건 제법 농(農)한 이야기

요리와 이야기-
농사없이 농사 짓기의 기록

이하영

고개는 살짝 삐딱하게. 한쪽 손을 가슴께로 들어 올린 뒤 물기를 털 듯 양옆으로 가볍게 털어준다. 동시에 자신감과 여유를 담아 내뿜는다. “농(農)~한데?”

2023년 여름, 사용자공유공간planC에서 모내기와 함께 ‘공론장’ 행사를 개최했다. 굳이 백배미 탄생 배경과 의미를 조망하고 생태와 예술, 농업과 교육 등을 주제로 각자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준비했다. 나는 농업과 예술의 경계에 놓인 ‘농적(農的)’ 작업들을 정리해 소개하며 우리의 작은 논이 어떻게 예술과 농업 사이에 놓일 수 있는지 발표했다.

발표를 준비할 무렵 홍동마을에서 농사를 짓거나 농사에 한 다리 걸친 채 반농반X의 삶을 살아가는 또래들과 밀고 있는 유행어가 있었다. “농적이다” 단순히 밭을 일구고 김을 매거나 씨앗을 뿌리는 등 ‘농사’ 하면 떠올리는 행위만을 담아내는 표현은 아니었다. 굳이 따지자면 ‘힙하다’와 비슷한 뉘앙스를 지닌 말로, 논과 밭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됐다. “우리 지금 좀

농적인데?”라고 말할 수 있었던 순간들을 돌아보면 다음과 같다.

타자와 우정을 쌓아갈 때

몸을 움직이고 땀을 흘리며 손과 몸으로 배울 때

줌으로써 받는 호혜의 경험을 할 때

돈 없어도 괜찮은/ 돈 없어서 가능한 낭만의 순간이 찾아올 때

신뢰를 바탕으로 연결될 때

서로에게 배우며 돌볼 때

공동의 것을 나눌 때

나와 자연의 관계를 회복할 때 ...

‘농적이다’의 정의는 계속해서 추가되는 중이지만, 위 내용을 토대로 거칠게 정리해보자면 농사를 지을 때 활성화 되는 감각, 농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에서 공유하는 암묵지, 지혜에서 비롯된 삶의 태도에 가깝다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요리와 이야기’

활동을 지속하며 몇 가지 정의가 더 추가됐다. ‘특별한 보상이 없을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서로를 향한 신뢰만으로 기꺼이 고생을 감내하며 함께 뭔가를 이뤄냈을 때’, ‘자본의 논리가 우리의 식탁을 포함한 일상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어가는 순간에도 정말 중요한 것들이 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의식하고자 할 때’와 같은 의미가 더해졌다. 형태도 좀 더 스웁(Swag)있게 바뀌었다. “농~하다!”

두 개의 질문과 함께 ‘요리와 이야기’ 팀의 한해 성과와 의의를 정리하며 글을 마무리 해볼까 한다. 첫 번째, 우리의 활동을 농사라 부를 수 있을까? 농사를 농작물을 심고 가꾸어 수확하는 일이라고 정의한다면 우린 그 외의 활동을 너무 많이 했다. 책을 읽고 전문가를 초대해 스터디를 하고, 공론장을 개최하고, 활동보고서를 쓰고, 요리를 하고... 8㎡의 작은 논에 벼를 기르며 농사의 활동이 더 많았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의 활동을 예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예술을 감상의 대상이 되는 무언가를 창작하는 행위라고 한다면, 우리의 창작물인 구들장논만을 가지고

예술작품이라 부르기에는 조금 아쉽다. 논 자체보다 의미 있었던 건 논을 만들고 돌보는 과정, 다양한 참여자들과 함께하며 경험한 연결의 감각들이었다. (창작물에서 수확한 쌀 역시 공동경작자들의 땀속으로 모두 사라져 버렸다) 아무리 뭐든 예술이 될 수 있는 세상을 살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활동을 예술이라 부르는 데 물음표를 그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그래도 괜찮다. 두 질문에 대한 답이 모호하다 해도 문제없다. 우리에게겐 이럴 때 딱 어울리는 말이 하나 있다. “우리의 활동은 너무나 농적이었다.” 작은 논을 매개로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모험을 감행했으며 수많은 낯선 존재들과 연결됐다. 잠깐이었지만 한옥마을이라는 가장 상업적인 곳에서 돈 없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제공했고, 일상에서 생태적인 삶을 고민하게 하는 순간을 마련했다. 모내기를 하고, 추수를 하고, 벼짚으로 리스를 만들고, 찻나락을 까며 끊임없이 손과 몸을 움직였다. 결국 이 책은 농사 없이 농사를 지었던 한 해의 기록이다. 농부도 예술가도 아닌 존재가 되어 농업을 예술의 영역으로,

예술을 논과 밭으로 소환해 보려했던 농적 작업자들의 이야기다.

p.s ‘논’ 과 ‘쌀’ , ‘밥’ , ‘생태’ 에 관심을 가지고, 또는 ‘생태미식’ 의 실천과 요리를 통한 배움의 가능성을 믿으며 이 책을 펼쳤을 당신 역시 제법 농(農)한 사람!

이 책을 펼쳐 든 당신, <쌀-밥 짓기>라는 책 제목을 보고 무엇을 기대하셨나요? 윤기가 자르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맛난 밥 짓는 법을 기대하셨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쌀-밥 짓기>는 ‘쌀농사를 짓다’에 ‘밥을 짓다’를 합쳐 만들어낸 신조어입니다. 여기서 잠시 ‘짓다’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요. ‘짓다’라는 단어는 우리 삶을 이루는 의식주를 형상화하는 동작을 말해줍니다. ‘옷을 짓다’, ‘밥을 짓다’, ‘집을 짓다’. 농사도 역시 ‘짓다’로 표현하죠. 그뿐이 아닙니다. 어떤 창의적인 영감이 떠오를 때는 ‘글을 짓고, 시를 짓’ 습니다. ‘만들다’와 ‘쓰다’와 같은 단어 말고 굳이 ‘짓다’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대상을 귀하고 정성스럽게 한땀한땀, 차곡차곡 다루는 모습, 영감을 떠올리며 기쁜 마음으로 꺾꺾 눌러 써 내려가는 모습들이 ‘짓다’라는 단어 속에 있기 때문이겠지요.

<쌀-밥 짓기>는 밥을 짓기 위해 농사의 ‘농’ 자도 모르던 예술가들이 광주문화재단 창의예술교육랩 <요리와

이야기>라는 팀으로 모여 귀하게, 정성스럽게 쌀농사를 짓고 그 과정에서 떠오른 창의적인 영감들을 행위와 실천으로 옮겨낸 예술실험입니다. 예술실험의 1단계는 구들장 논 만들기로 밥을 짓기 위해 농사지를 작은 논 화단을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2단계는 모내기로 8제곱미터의 작은 논에 굳이 백 명의 사람들과 1인 1모내기로 공동경작을 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3단계는 추수로 모내기를 함께 했던 사람들과 이어달리기하듯 낫 들고 이어벼베기를 한 단계입니다. 4단계는 드디어 함께 밥을 지어 먹는 작업이었습니다. 각 단계의 작업을 거치는 과정에서 창조적인 ‘놀이’를 만들고 사람들과 즐기기도 했는데요. ‘뉘’를 고르는 게임을 하기도 하고 ‘벗짚’으로 리스를 만들기도 하고, 핸드 드립 말고 핸드 도정이라 할 수 있는 ‘씻나락 까먹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술실험을 하며 우리는 한 그릇의 밥이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여정에 대해 생각했고 ‘생태’에 대해 생각했고, 일상의 ‘음식’에 대해 생각했으며, 이 시대의 예술 역할에 대해서도 생각했습니다. 이 책의 목차는 그 과정들을 최대한 그대로 담아냈습니다. 또한 과정 중에 함께했던 여러 차례의 공론장과 논 돌봄 활동들도 정리했지요. 책의 말미에는 <쌀-밥 짓기>라는 예술실험을 문화예술교육의 실제적인 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록을 덧붙였습니다.

음악가이자 시인, 교사이자 컴퓨터 아티스트 스티븐 나흐마노비치는 “창조적 작업은 놀이와 같다. 원하는 형태의 재료를 사용해 자유로운 추측을 하는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요리와 이야기>팀으로 모인 예술가들의 14개월은 <쌀-밥 짓기>라는 예술실험을 재료로 자연스럽게 선인들의 옛 지혜를 되짚으며 자유롭고 창조적인 놀이를 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만들며 돌아보니 우리의 작업을 ‘농하고 사회로운 예술실험’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쌀-밥 짓기> 책을 펼쳐 든 당신, 어떤 기대를 안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든지, 우리들의 이야기가 당신의 창조적인 작업이자 놀이의 영감이 될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윤기가 자르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맛난 밥을 짓는데도 말이에요.

구들장 논 이름을 ‘굳이백배미’로 지었던 물살이 카페에서
라라_김진아

자세한 내용은
187~193쪽에서
볼 수 있습니다.

4월 | 법시 준비
쪽 46

5월 법씨 소독, 못자리
쪽47-49



10월 추수하기
페이지 73_83



벗짚리스만들기
쪽84-95,213-219



11월 | 건조, 탈곡
쪽 168-171



3월 구들장논 만들기
논이 있다면 논둑 보수작업
쪽 24-34, 194-205



6월 | 써레질, 모내기
쪽 49-55, 148-156



닌고게임
쪽57,207-212



7-9월 김매기
물관리
논둑 풀 관리
쪽 157-167



12월 | **도정, 쌀밥 짓기**
쪽172-174



씻나락 까먹기
쪽114-117,221



목 차

머리말_이건 제법 농(農)한 이야기_이하영	4	쌀-밥 짓기 공론장_이선	118
글을 시작하며_라라	10		
연간 농사달력	14	구들장 틀논 굳이백배미 돌봄일지_이산	144
쌀-밥 짓기 1단계_도심에 구들장논 만들기_사군	19	맺는말_꿈꾸는 벼 별 헤는 밤_맑똥	176
쌀-밥 짓기 2단계_모내기 하는 날; 구들장논에 출몰한 굳이 100_맑똥	43	쌀-밥 짓기 부록	
		맑똥의 농사달력	187
		구들장틀논 만들기	195
쌀-밥 짓기 3단계_추수하는 날; 논과 모로 이어져 낫들고 벼베기까지_라라	63	넉고 게임	205
		벗짚리스 만들기	213
		씻나락 까먹기	221
쌀-밥 짓기 4단계_밥 먹는 날; 광주생태미식학교를 상상하는 집담회 현장 톺아보기_이하영	99		

쌀 — 밥짓기 1 단계

도심속 구들장논 만들기

2023년 미디어아트 페스티벌에 제4집단이 참여하면서 알게 된 총감독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켄치 호텔 램 루프탑에서 진행되는 퍼포먼스에 음악감독으로 영입(?) 당했다. 이 퍼포먼스는 2명의 무용수와 행위예술의 결합인데 음식에 관련된 주제였고 행위였다. 생산에서 유통으로 그리고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대해서 전달하는 행위예술이었다. 우리의 식탁에 어떤 음식이 어떠한 방법으로 생산, 유통, 전달의 방식으로 올라오는지에 대한 것을 행위예술을 통한 전달 방법에 흥미가 생겨 참여했고 그곳에서 큐레이터를 맡은 현재의 랩장을 만나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고 랩장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광주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창의예술교육랩을 진행하는데 연구진으로 함께할 수 있겠냐는 의견에 호기심이 생겼다. 나는 음악을 하는 사람인데 음악과 음식에 관련된 주제를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하는지, 재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진행의 방향, 혹은 연구와 결과를 잘 정리(?) 해야 하는데 조금은 겁을 먹었고 자신이 없었다. 일단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 오리엔테이션에서 설명을 듣고 결정해 보는 것은 어떻냐는 제안이었다. 현장에 걸린 현수막에서 조금은 놀랐다.

경계 없는 상상과 실험, 예술을 광주를 바꿀 수 있을까?

'경계 없는 상상과 실험, 예술을 광주를 바꿀 수 있을까?'라는 현수막은 과연 저 문구가 진실함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며 행정은 그만큼 따라올지 의구심이 컸고 이도 저도 아니라면 이 자리에 모인 많은 예술가들이 저렇게 까지 달라붙어 악착같이 하지 못할 것을 이미 예단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활동 랩은 “요리와 이야기”라는 팀이었는데 행위예술가, 철학자, 미술가, 음식연구가, 음악가 등 각기 활동하는 주제와 영역들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다. 서로는 서로에게 배려가 있었고 제로베이스에서 시작된 모임은 부담 없이 토론하기 시작했다. 어떤 연구를 진행할지 깊은 탐구를 시작했다. 랩장으로 초대된 진아 씨는 우리 모임의 이름은 음식과 이야기인 만큼 자신이 읽었던 책을 중심으로 스터디를 요청했고 그렇게 모임은 시작되었다. 농부인 맏똥을 소개한 랩장은 맏똥이 운영하는 작은 정미소, 멧돼지 논, 한새봉농업생태공원을 가볼 것을 권유했다.

구들장 논 만들기

2022년 11월 28일 김진아, 사군, 이산, 이선, 이하영은 매통 작은 정미소에 모였다. 내린 비로 공기는 맑았고 상쾌했다. 무등산 골짜기를 따라 내려오는 하얀 안개는 장관이었다. 사과와 감을 비롯한 뽕튀기와 각종 주전부리들을 먹으면서 매통은 자신이 진행하는 텃논 프로젝트, 구들장 논 만드는 법 등 농사 이야기를 해줬다.

매통에게 궁금했던 점들을 매통은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다. 물이 부족한 환경에서도 비교적 쉽게 키울 수 있는 구들장 논을의 장점과 토종 쌀, 토종씨앗 이야기들은 주변에서도 쉽게 들을 수 없는 내용이라 재미있었다. 김진아, 이하영은 농업을 가까이하며 살았고 현재 진행형이기도 해서 편해 보이고 자연스러웠지만 나는 오랜만에 들른 먼 친척의 집에 온 사람 마냥 낯설고 어색했다. 이후 매통이 경작하는 멧돼지 논을 보고 한새봉농업생태공원으로 이동했다. 매통이 운영하는 멧돼지 논은 이름은 실제로 멧돼지를 현장에서 보고 너무 놀라서 멧돼지 논이라고 정했다고 했다.



불의 발견

논들을 본 후 우리는 흥미를 가졌는데 위험했다. 시간이 흐른 뒤 우리는 몇 번 만났고 전주 한옥마을 중앙에 위치한 사용자 공유 공간planC에 구들장 논을 만들기로 했다.우리는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근원을 찾아낸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불의 발견이었다. 공교롭게도 정확히 한 달 뒤 12월 28일 사용자공유공간planC에서 모인 우리는 놓고 있는 작은 공터를 논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갔다.논 넓이는 8㎡로 3평이 조금 되지 않는 작은 곳이었다.

2023년 2월 2일 공터를 막아 놓은 펜스를 제거하고 위에 있던 잡동사니 및 쓰레기를 치웠다. 사용자공유공간planC에 들어가는 입구는 인도에서 2군데로 나누어졌는데 작은 철문과 전시장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었다. 작은 철문은 야외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면 뒤에 창고와 그 뒤쪽으로 연결된 작은 통로가 있었는데 그 통로에 있는 여러 잡동사니들을 치웠다.

이산은 논농사에 필요한 흙을 중인동 갈마제 근처에 땅을 가지고 있는 지인에게 퍼간다고 전달했고, 미리 갈마제 아래에서 포클레인을 이용해 논으로 들어갈 흙을 4톤 정도 준비해 놓았다.

본격적인 작업

2월 3일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감에 따라 alc블록을 미리 주문해놓았다. 약 80개의 alc 블록을 이용해서 밑 바닥을 띄운 후 얇고 기다란 구들장을 깔기 시작했다. 논 의 가운데를 관통하는 통수로를 만들었는데 이는 구들장으로 연결되고 물을 가둬 놓을 수 있는 장치가 되었다. 마침 전날 사용자공유공간planC 뒤를 정리하면서 뜻밖에도 구들장을 우리는 미리 구할 수 있었다. 이 alc 블록들은 밑으로 하부 작업을 마치고 그 위로 구들장을 올려놓아 물을 가두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이산 작가는 집 근처 폐가에서 돌을 구해 자기의 차에 돌을 실어 날랐다. 지금 생각해보면 꽤나 많은 돌들을 가져 왔는데 차가 퍼지지 않은 게 다행이었다. 하지만 예상보다 많은 양의 돌이 필요했는데 다행히도 사용자공유공간planC 옆에 리모델링 공사하는 곳에서 먼저 우리에게 돌을 가져가지 않겠냐고 물어봤다.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지게차가 필요한데 그 현장에서도 필요하니 한번 도와줄 수 있냐는 상부상조하자는 의도였다. 옆 공사하는 곳을 직접 가서 보니 예쁘고 큰 담돌이 많이 있었다. 우리는 흔쾌히 가져왔다. 인도를 따라 약 50m 거리에 위치한 곳에서 한발 수레로 돌을 나르다 수레 담는 철판과 고정판이 부서졌다. 참으로 안타까웠다. 경험이 없는 삽질과 돌 나르기에



체력적으로 많이 지치기도 했고 짜증이 솟구쳐 올랐다. 이산은 영상을 촬영하는 팀을 불러 핸드 캠과 드론을 이용한 촬영을 해주었는데 영상감독은 나에게 음악가가 된 막노동을 하냐고 웃으며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이 난다.

구들장 밑바탕을 마무리한 우리는 갈마제로 이동했다. 매통의 트럭을 이용해 전날 포클레인을 이용해 숙아 놓은 흙을 트럭에 담고 구들장 위에 덮었다. 본격적인 삽질이 시작되었고 2인 1조로 붙어서 흙을 퍼담아 트럭에 올렸다. 영상 촬영만 집중하던 영상감독님은 보다보다 안쓰러웠는지 자신도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도와주었다. 공사에 참여한 인원 중에 이산작가의 아이들 술찬, 차린이의 고사리손도 동원되었다. 흙을 담아 올라오는 길이 경사가 진 오르막이었는데 매통의 차가 뒤로 넘어가지 않을까 걱정될 만큼 아슬아슬했다.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바탕이 된 우리는 매통의 차에 타지 않았다. 무서움이 아니라 잘 올라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사실 나는 삽질하다 지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다) 물이 모자랄까 걱정되어 PVC 빗물받이 물탱크를 논둑 위에 설치했다. 물탱크는 우리 차에 실어 나르려 하다 차에 들어가지 않아 배달을 요청했고 철물점 사장님은 주소를 착각하여 일방통행에 진입한 상태여서 사용자공유공간planC에는 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나와 이산 작가는 10분 정도 걸어서 물탱크를 옮겼다. 후에 우리는 물탱크를 빗물 저금통이라 불렀다.





빛물 저금통 pvc는 하얀 통이었는데 그 하얀 자태가 어색해서 황토(?) 색 페인트를 칠했다. 눈두렁 안으로 햇빛이 들어오지 않을까 걱정한 우리는 반사경이 설치하기로 했다. 반사경을 어디에서 구입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던 우리는 아침부터 고물상을 3군데 정도 발품을 찾았고 결국 안전용품점에서 구할 수 있었다.

2월 13일 전시가 시작되다.

우리가 만든 구들장 논은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는 반면 안에서는 분주하게 움직였다. 우리는 구들장 논 만들기 사용설명서를 벽에 붙이고 하영 작가는 설치미술을 시작했다. <조왕신들을 위하여>는 어떤 조건에서든 우리를 먹여 살려온 어머니들의 요리법에 담긴 지혜를 기리기 위한 작품이었다. 바닥에 놓인 도기들은 할머니들의 주방에서 수집한 주방집기들을 모아 제작되었다. 이 작품은 <쌀-밥 짓기> 구들장논 만들기 오프닝 자리에서 한 해 농사의 풍년을 기리는 마음, 밥이 될 쌀에 담긴 많은 이들의 정성을 돌아보기 위해 설치되었다.

오른쪽 바닥에 놓인 작품 <SEED>는 강수지&이하영이 마을 할머니들로부터 전해 받은 토종씨앗과 이들이 지켜온 농사에 대한 토착 지식을 기록하기 위한 아카이브 작업이었다. 토종







벼가 자라는 굳이백배미 논 의 의미와 ‘토종씨앗’의 중요성을 조명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매통은 토종 쌀을 맛보게 하기 위하여 자광도+대관도+가위찰을 섞은 쌀 ‘있 좋 그대’, 자광도, 대관도를 이용한 밥을 했고 랩장은 오직 쌀, 누룩, 물 만을 이용한 막걸리를 내놓았다. 나는 밖에서 장작불을 붙여 호박죽을 쑤었고 다들 전시 준비에 한참이었다.

다행히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한 사람씩 작품을 만든 소감을 나누었다. 문화 재단에서도 멀리 전주까지 한걸음에 달려와주시고 우리가 초대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 마지막 순서로 피아니스트 이승규의 연주가 시작되었는데 논을 보면서 즉흥연주를 진행했다.

벼가 세상에 던지는 유쾌하고 짜릿한 질문들을 받아보시라.

우리는 아이들에게 혹은 타인에게 꿈을 꾸라고 강요한다. 어찌면 폭력을 행하는데 조금 비관적인 혹은 염세적인 나는 꿈을 꾸면 개고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안다. 어쨌든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씩 “내가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미친 짓(?)을 하기 시작하는데 낮설고 엉뚱한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질 때만큼의



희열은 그것을 이뤄낸 당사자만이 안다. 산업지구, 관광지구, 지독하리만큼 자본주의의 끝을 달리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전주 한옥마을 중앙에 위치한 사용자공유공간planC 앞을 스 지나가면 이상한 식물이 피어있을 것이다. 벼가 세상에 던지는 유쾌하고 짜릿한 질문들을 받아보시라.

쌀 - 밥짓기 2 단계

모내기 하는날; 구들장논에 출몰한 굳이 100

맏똥(김영대)|
많은 똥을 싸는 삶을 꿈꾸며 토종곡물
농사를 짓고 있다. 다양한 토종벼의 밥맛을
보고 그 똥을 벼농사로 순환시켜보고
싶어서 '작은정미소-맏똥토종쌀롱'을
운영하고 있다.

어둡게 얼어붙은 냉동고에 잠들어 있는 450여 종의 토종벼.
그들이 씨앗으로 이어져 오던 시절 농부들과 함께했다. 우리나라에
근대화가 본격화되던 일제강점기 토종벼들은 함께했던
농부들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했다. 농부들 또한 반강제적으로 자식
같은 법씨들을 버리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법씨로 바뀌가게 되었다.
근대산업사회로 발전해 가면서 농부들은 농사를 짓는 공간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 도시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토종벼는 잊혀
버렸고, 대부분이 농부였던 시절이 저물고 현재는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91.9%(22년 기준 도시 계획 현황 통계-국토교통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되었다. 과거의 농부들이 수천 종이 넘는
다양한 벼들을 심고 이어왔으나, 그들은 이제 도시의 근로자가
되었다. 토종벼 역시 대부분이 사라지고 450여 종만이 냉동고에
남겨졌다.

토종벼와 농부에게 시련이 시작된 시점에서부터 100년 후
도심 한복판에 토종벼와 농부가 나타났다. 도시가 확장되면서

쫓겨난 존재들, 도시에 나타난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들, 그리고 토종벼와 농부. 그들이 도시에 등장하면 ‘출몰’했다고 한다. 이들의 출몰은 도시 이전의 기억을 소환한다. 그 기억이 모두 소멸되기 전에 쫓겨난 존재를 드러내는 ‘출몰’은 도시에 ‘생태’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출몰’은 혼자보다는 그래도 여럿이 함께할 때 주목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였을까 우리는 굳이 100명을 모아 모내기를 하기로 했다.

잠든 벼씨 깨우기-

벼가 베어지고 건조된다. 수분율이 12~16%로 떨어지면서 벼는 휴면기에 들어간다. 잠을 자는 것이다. 다음 해에 잠든 벼를 깨워 심는다. 이렇게 잠을 깨워 다시 씨앗을 맺게 하기 위해 남겨둔 벼를 벼씨라 한다. 벼를 잠에서 깨우기 위해 100℃의 온도가 필요하고 수분율을 7~80%대로 다시 끌어올려 줘야 한다. 예를 들어 벼씨를 20℃ 물에 5일간 매일 물을 한 번씩 갈아주며 담가놓으면 벼씨에서 싹이 튼다. 잠에서 깨어난 것이다. 25℃ 물에는 4일이 필요하다. 한 번에 100℃의 물에 담그면 밥이 될 테니. 밥을 ‘짓기’ 위한 100℃가 아닌, 벼농사를 ‘짓기’ 위한 100℃는 이왕이면 30℃를 넘지 않은 온도의 물에서 하루하루 싹아가야



싹튼 벼씨. 벼씨가 싹을 틔웠다. 하루하루 물을 머금으며 몸에 온기를 품었다. 잠에서 깨어났다. 이때 벼씨를 못자리논이나 모판에 뿌린다.

벼 육종의 역사	1906~	~1930	~1970	~1980	~1990	~2016
목표	근대적 벼 육종시작 권업모범장 설립	끼리끼리 헤쳐모여라 이웃나라에는 어떤 종자가 있나요?	통일벼로 자급자족 달성 (식량자급)	더 맛있는 밥 더 많이 생산 튼튼한 벼	많이 많이 생산	빠른 시간에 자라요
도입	재래종 순계분리 (재배농가)	자연돌연변이 육종	자포니카와 인디카 교잡	약배양 및 잡종강세 육종	GMO기술	우주육종 (방사선 돌연변이)
역할자	농부					과학자

벼 육종의 역사. 『근현대 한국 쌀의 사회사』 (–김태호 지음/들녘)를 참고하여 작성.



볍씨 파종 후 15일.

앞에 세 개가 펼쳐졌다. 경험상 볅씨 파종 후 25일에서부터 30일이 되었을 때 모를 옮겨 심으면 뿌리가 새로운 곳에서 뻗어나가는 힘이 가장 좋았다. 볅씨 파종 후 45일 전까지 심는 것이 좋다.

한다.

잠에서 깨어난 벼에서 두 줄기가 나온다. 하나는 뿌리, 하나는 줄기이다. 뿌리가 땅에 내리기 시작하면서 볅씨는 모라 불리며 처음 뿌리를 내린 곳에서 다시 벼가 될 때까지 자랄 곳으로 옮겨질 시기를 기다린다. 볅씨가 뿌리를 내리고 25일~45일까지 자랐을 때 보통 옮겨 심는다. 그렇게 옮겨 심는 것을 모내기라 한다.

굳이

8㎡의 작은 구들장논에 약 100개의 모를 심을 수 있겠다는 계산을 했다. 혼자 심으면 30분 내로 끝낼 모내기를 100명이 함께해 약 120분의 시간을 쓰기로 결정했다. 모내기할 사람을 모집했고 당일 모내기하러 오는 날 드레스 코드는 화려한 파티 복장이었다. 귀환(출몰)이 화려하면 좋지 않겠는가. 지금 생각하면 이 화려한 복장은 출몰하는 존재들이 사실은 91%의 도시민들 사이사이에 이미 섞여 있지만, 드러나지 않게 살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겠다 싶다.

어떤 이는 연분홍 꽃잎이 흐드러지게 핀 듯한 색감의 옷을 입고 왔고 어떤 이는 선글라스를 끼고 드론을 애완 비행체처럼 가져왔다. 드론을 머리 위로 낮게 띄워놓고 모를 심었다. 또 어떤

이는 한복을 입고 왔다. 전주한옥마을에서 한복을 대여해 주는데 그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것이 유행이다. 그리고 도시에 나올 때 입는 무난한 복장들. 뭔가 나름대로 개성이 드러난 복장에서 진지하기도 하고 장난스럽기도 하다. 경험하기 쉽지 않은 이 분위기에서 세 가닥이 한 뿌리로 모두 지어진 모 하나를 받는다. 그 모를 심게 될 좌표도 받는다. 본인이 모를 어느 위치에 심었다는 보증서다. 눈에 그 좌표가 그대로 표시되어 있다. 가로에 1, 2, 3, 4 ... 숫자가, 세로에 가, 나, 다, 라 ... 가 논둑에 새겨져 있다. 녹색 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빨간 털실이 꽂힌 못줄이 가로를 세로질러 팽팽하다. 녹색의 못줄에 박힌 빨간 지점에 모가 심어질 예정이다.

모와 보증서를 들고 낫선 사진을 찍는다. 뾰족한 낫선 감축의 장화를 신는다. 장화를 신지 않은 이는 낫설게 맨발로 미끄덩한 진흙의 낫선 감축을 맞이한다. 몇 발짝을 뒤통거리며 걸어 들어가 못줄에서 30센티미터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어깨너비로 양발을 벌리고 선다. 모의 뿌리 부분을 엄지와 검지, 중지를 이용해 세워 잡는다. 무릎과 허리를 동시에 구부리며 엉덩이에 힘을 준다. 못줄 빨간 지점 뾰족 검지 한 마디 정도의 깊이로 모와 함께 진흙 속으로 손가락이 들어갔다 손만 빠져나오며 모가 진흙 속에 콕하고 박혀 심어진다. 그리고 다시 뒤통거리며 나와 발에 묻은 미끄덩한 진흙을 물로 씻어낸다. 이 번거로운 과정을 ‘굳이’ 수십 차례 반복한다. 모 하나 심고자



못줄. 녹색 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빨간 털실이 꽂혀있다.
빨간 지점에 모가 심어진다.



낮선 사진. 모와 그 모를 구들장논 어느 위치에 심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보증서를 들고 낯선 사진을 찍는다.

레드카펫에 줄 선 이들도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눈으로 수십 번
모심기를 연습한다.

도시에 어울리지 않는 논이 생겨나고, 그 논 또한 일반적인
논이 아닌 ‘구들장’ 논이다. 청산도 섬 사람들이 식량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척박한 산지의 논에 물을 잘 담아내기 위해 고안해
냈다. 구들장논은 우리나라 전통 가옥에서 불을 때어 난방을
하는데, 뜨거워진 연기가 방바닥 아래를 지나며 방바닥을 따뜻하게
만드는 구들방과 같은 구조다. 구들방 아래에 난 통로가 전통
가옥에서는 연기의 통로다. 구들장논에서는 논이 물이 빠져나가는
통로다. 논에서 빠져나간 물은 그 아래 논으로 흘러 들어가
산에서부터 계단식으로 형성된 논 전체에 물을 담았다. 낯선 그
논에서 온통 낯선 행위들이 벌어졌다.

멀리서 모심는 풍경을 들여다보던 오십 대 여성들이 나누는
대화가 살포시 들려 온다.

“아야 저기 뭇한다냐?”

“니가 가보고 올래?”

“가란다고 또 갔냐? ㅋㅋ 그래 뭇 하고 있디?”

“모내기 하드라.”

“저기 저 쪼끔한 데서?”

“미쳤구만.”



모내기를 끝낸 굳이백배미.
논 안에 들어가지 않고 사방 논둑에서 서서 모내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논에서 굳이 100명이 100개의 모를 심었다.

점유

사람들이 길 한쪽 편에 책상을 펴고 의자에 앉아 점시를 들여다보고 있다. 모내기하던 사람들이 이젠 차 없는 거리의 시간을 점유했다. 탁상을 놓고 두 명씩 마주 앉아있다. 총 16명이 마주 보며 앉을 수 있는 탁상이 길게 놓여 있다. 그 모습이 거리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게 했다. 탁상 위에 ‘넉고판’이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글자가 보인다. 그 옆엔 알록달록한 쌀이 보인다. 책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이 그 쌀알에서 무언가를 골라낸다. ‘넉고판’에 ‘넉’에 대한 설명이 눈에 들어온다. 방아 찧어 나온 쌀에 섞여 있는 벼를 넉이라고 한다는 내용이다. 옛날 절구나 디딜방아로 벼 껍질을 까서 쌀로 만들었던 시절에 쌀에 벼가 많이 섞여 나왔다. 이 벼를 골라내 밥을 지어 먹었다 한다. 벼를 골라내는 일을 보드게임처럼 사람들이 하고 있다.

사람들 대부분이 긴장하면서도 재미난 듯한 웃음을 짓고 있다. 진행자가 게임 시간이 1분이라는 것을 알리고 게임 방법 등을 소개한다. 결론은 쌀에 섞인 벼를 골라내 넉고판의 스물세 칸으로 이루어진 ‘넉’라는 글자에 벼를 찾아 칸을 벗어나지 않게 하나씩 다 채워야 이긴다. 우리가 흔히 아는 ‘빙고’ 게임 때처럼 칸을 다 채웠을 때 ‘넉고’라 외친다.



넉고게임 토너먼트.
차가 다니는 길에 탁상을 펴 넉고게임 토너먼트를 준비하고 있다.



진행자가 시작을 알리는 종을 쳤다. 눈동자와 검지의 기막힌 협업이 뉘를 채워가기 시작한다. 3개를 찾아 채우고 10초, 5개에 20초, 10개에 30초, 15개에 40초, 18개에 50초, 으~~! 심장이 쪼인다. 5개만 찾아 넣으면 뉘고를 외치는데. 그리곤 끝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다. 16강 토너먼트 첫 게임에서 ‘뉘고’를 외친 이는 없었다. 그랬을 땐 대결자 둘 사이에서 가장 많은 뉘를 골라 각 칸을 벗어나지 않게 뉘를 잘 놓아둔 사람이 이긴다.

1분이라는 시간, 별것 아닌 것을 흥미진진하게 한다. 16강 탈락자가 정해지고 8강에 진출한 사람들이 다시 자리를 정비했다. 16강 때와는 달리 몇몇 사람들에게 행동의 변화가 보인다. 엄지와 검지를 옷에 비빈다. 종이 울렸다.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까지도 눈이 동그레지고 발을 동동 구른다. 10, 9, 8, 7, 6, 5, 4, 3, ‘뉘고’, 2, ‘뉘고’ 1땡~~! 종이 울렸다. 이번 게임부터 ‘뉘고’의 외침이 나왔다. 이렇게 준결승을 거쳐 결승엔 여자 어린이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준비하고 있다. 요것이 뭐라고 서로 가슴을 줄이고 게임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를 기다리고 있다.

땡~~! 긴장해서였을까. 검지에 뉘가 착 달라붙는다. 쌀 속에서 뉘를 쏙 뽑아내기에는 좋으나 뉘 글자 칸에 놓으려고 하니 흐트러진다. 쌀 속에서 뉘를 쏙쏙 뽑아 뉘고판 한쪽에 모아놓고 검지를 옷에 닦는다. 그리곤 뉘 글자 칸으로 쉬쉬 식~~! 5, 4, 3,



뉘고판(위) 뉘고게임 결승전(아래)

‘넉고’, 2, 1 팽~~! 준우승자는 아직 넉고를 외치지 못한 여자 어린이. 우승자 1명, 준우승자 1명, 3위 2명, 4위 4명에겐 뉘를 잘 골라냈으니, 쌀이 상금으로 수여된다. 우승자에겐 8킬로의 쌀, 준우승자에겐 3킬로, 3위에겐 1.5킬로, 4위에게는 500그램의 쌀이 수여되었다.

16강 토너먼트가 결승까지 진행되는데 순수 게임 시간만으로는 4분이 걸린다. 이 짧은 시간에 희비가 엇갈린다. 악마 같은 시간에 썰타는 듯한 시간이 찰나를 이룬다.

“이게 뭐라고!”

재밌다. 낫설어서, 궁금해 어찌하지 못하고 출몰해 버렸다.

일상에서 매일 접하는 낫선 행위의 결과물

낫선 존재들이 무섭고 두려운 감정을 가지고 도시에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좋다. 이날의 모든 낫선 행위들의 결과는 매일 받아보는 밥상에 구현되어 이미 일상에서 보고 있는 것들이다. 한 명이 할 수 있는 규모의 일을 굳이 100명이 함께 하니 이 또한 낫설다. 근대산업사회로의 진전으로 밥(농사) 짓는 일은 소수자가 되어버렸다. 이들의 입장에서 100명이 함께

하는 일은 낫설다. 이 낫셈이 현대 사회에 ‘생태’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는지는 알 수 없다.

쿵광대는 가슴, 눈가와 입가에서 웃음 지어지는 감각을 간직한다. 이를 함께 한 사람들이 비슷하게 느꼈다면 이날의 출몰은 긍정적이다.

쌀 - 밥 짓기 3 단계

추수하는날; 논과 모로 이어져 낫-들고 벼-베기까지

라래

'진짜 나'라는 진아(眞我)의 이름 뜻을
생각하다 노래 부르듯 즐겁게 사는 라라로
불리기로 했다. 씨앗 받는 농사를 짓고
요리하는 음식철학 교육가다. 나만의
음식철학을 세우는 독서모임 푸드필로를
이끌고 있으며 채소요리연구소 쿡앤아트를
운영중이다. 쿡앤아트는 지속가능한 음식을
매개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문화예술
활동으로 협업한다.

2023년 2월 전주한옥마을 한가운데에 8㎡의 작은 구들장
논을 만들었다. 관광지 한가운데서 돌과 흙을 나르는 일은 만만치
않았지만 완성해 놓고 나니 어찌나 예쁘던지. 벼가 자라는
작은 화단을 만든 기분이었다.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논이
뭐야?", "미쳤나봐!", "도대체 이걸 왜 하는 거예요?", "밥 한 공기
나오죠?" 다양한 반응들을 관찰하는 일도 흥미로웠다. 우리는
구들장 논에 이름도 붙여주었다. "굳이백배미" 굳이 전주에서,
굳이 한옥마을 한가운데, 굳이 100명을 모아, 굳이 100모를
심어보기로 했기 때문이다.

6월 4일 모내기 날, 100명까지 함께하진 못했지만 약 70여
명의 사람들과 1인 1모 심는 작업을 했다. 모 한 포기 심는 일은
먹거리 경제의 첫 단추를 꿰는 일, 앞으로 내가 심은 이 모를
보살펴보겠다는 마음, 생경하지만 이미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흙
위에 서보고 싶다는 본능적인 감각이 뒤섞여 나온 행위가 아닐까

생각했다. ‘모 한 포기 심을 때의 그 마음이 추수 때도 올라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모내기한 사람들과 추수까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까’ 우리의 바람이었다.

추수를 앞둔 10월. 모내기를 함께 했던 70여 명의 공동경작자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6월에 심은 모가 다 자랐다고. 같이 추수하자고. <요리와 이야기> 팀이 꿈꾼 것은 모내기했던 70명에게 모두 답신이 오는 것이었지만 10월 22일 추수 전날까지 온 회신은 10여 명이었다. 그 10여 명에게 감사한 마음이었고, 추수날을 잘 준비하고 싶었다.

추수하러 오겠다고 마음먹은 이들을 위해 낫-들고 벼-벤 후 ‘놀’ 거리를 만들어주고 싶었다. 벼를 베고 나면 알곡은 탈곡해서 쌀로 만들고 남는 것은 벼짚이었다. 그래서 벼짚으로 할 무언가를 생각했다. 새끼 꼬기를 할까?, 걱정 인형을 만들까? 몇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우리가 선택한 것은 리스를 만드는 것이었다. 영원함, 생명의 순환, 행운과 같은 의미를 가진 서양의 리스는 상록수로 만들어 대문 앞에 걸어둔다. 우리나라는 벼짚으로 새끼를 꼬아 금줄을 걸어두는 풍습이 있는데 이 역시 샅된 기운을 쫓고 행운과 복을 기원하기 위해 두른다. 두 가지 모두 행운과 복을 기원한다는 점을 빌어 우리는 벼짚으로 리스를 만들며 다가올



논과 모로 이어져 낫-들고 벼-베기까지 함께 한 공동경작자들



이산의 벼짚 리스



벼짚 리스를 만들고 있는 우리들

새해의 안녕과 행운을 기원하자고 뜻을 모았다.

벚짚으로 어떻게 리스를 디자인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샘플을 보며 학습하고 만들기에 들어갔다. 벚짚을 머리카락 손질하듯 가지런히 한 후 이리 묶고 저리 묶고, 길이에 맞춰 자르고, 동그란 틀에 고정시키는 과정이었다. 어릴 적, 혼자서 머리를 묶어보려 애쓰다가 결국 엄마를 불렀던 때, 딱 그때의 감정이 올라왔다. 생각보다 어렵고 묶어놓으면 영 맘에 안 들고 다시 풀고 다시 묶고를 반복했다. 만들기 시작한 지 삼십 분이 훌쩍 지났지만 완성한 이가 나오지 않았다. 우리가 이렇게 서툰데 참여자들에게 잘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걱정스러워지기 시작했다.

한편 긴 시간 동안 벚짚을 이리 만지고 저리 만져보면서 가까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벚짚의 아름다움들도 발견할 수 있었다. 그중 하나는 벚짚이 다 같은 색이 아니고 마름 정도에 따라 살구 색부터 빛바랜 이파리 색까지 그라데이션을 만들어내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삭이 달렸던 부분의 들쭉날쭉한 자연스러움과 흙과 가까운 줄기 부분의 가지런함이었다. 더불어 수정되지 않아 텅텅 빈 알곡이 달려있는 이삭들의 창백한 초록빛도 정말이지 예뻐다. 우리들의 추수 날 사람들과 이 벚짚의 아름다움을 함께 해야지!



벚짚의 그라데이션 (위) /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것에 부아가 났는지 "에라 모르겠다"며 땅바닥에 철퍼덕 앉아버렸던 뭉뚱은 완성한 후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아래).

추수를 앞둔 며칠 전, “진아쌤, 낫은 몇 개나 준비하실 거예요?” 수현 선생님이 물어왔다. 속으론 ‘한 개면 되는데...’ 했지만 하나는 너무 적은 느낌이 들어 “두세 개 준비하려고 해요.”라고 답했다. 그렇다. 우리의 굳이백배미는 낫 하나만 있으면 추수가 가능하다. 보통 낫으로 벼 베는 장면을 떠올릴 때 여럿이서 일렬로 나아가며 베는 상상을 하지만 우리의 논은 2평 조금 넘는 작은 논이라서 여러 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바톤을 터치하는 방식으로 낫을 터치하고 이어달리기 말고 이어벼베기를 하기로 했다. 그러니 정말 한 개의 낫으로도 충분한 추수 날이다.

10월 22일 아침 10시, 굳이백배미 앞에 모인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타임테이블을 정리했다. 오후 두 시가 되면 이산 작가님이 <쌀-밥 짓기> 생태예술운동을 소개하고 오늘의 일정을 안내하기로 했다. 그다음 땀뽕이 낫 잡는 방법, 낫으로 벼 베는 방법을 설명하고 한 번에 한 사람씩 이어벼베기를 하기로 했다. 땀뽕은 사람들이 다치지 않고 낫을 잘 다룰 수 있도록 논 안에서 참여자를 돕기로 하고, 이산 작가님은 낫이 다음 사람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벼 벨 순서 정리를, 이산 작가님은 베어진 벼를 참여자들이 두 묶음으로 나누어 벼덕에 거는 작업을 돕기로 했다. 나와 하영 작가님은 벼덕에 벼 걸기를 마친 사람들이 자연스레 리스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한 시가 넘어가니 모내기를 함께했던 낫익은 얼굴들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했다. 이날 함께한 공동경작자 10여 명은 서울에서, 광주에서 전주 곳곳에서 모였다. 구들장 논 만들 때, 영상촬영을 담당했던 팀도 추수까지 담아주겠다면서 다시 왔다. 사례금이 전혀 없는데도 말이다!

‘이들은 정말 무슨 마음으로 온 걸까? 추수가 진짜 하고 싶었을까? 여기까지 벼 베겠다고 오는 동력은 무엇이었을까? 돈도 되지 않는 영상촬영을 왜 자진해서 해주고 싶어 하지?’ 무엇이 여기 모인 이들의 마음을 부추겼는지 궁금했다. 물어볼까 말까 망설이다 참지 못하고 낫익은 한 분에게 물어봤다.

“모내기하신 분 맞죠? 추수하러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네...”

“와... 진짜로 오셨네요! 어떻게 오시기로 맘먹으신 거예요?”

“제가 심었으니까 추수하러 와야죠.”

어쩌면 당연한 답변이었는데 나는 그 답변에 놀랐다. 8㎡의



작은 논, 자신이 직접 심은 모 한 포기 of 힘은 생각보다 셸다.
우리는 모내기 이후 굳이백배미에서의 논농사로 이어져 있었다.

맘똥이 낫 잡는 법과 벼 베는 방법을 소개하며 첫 벼를 수확했다. 이어 본격적인 벼 베기가 시작됐는데 낫도 처음 잡아보고 낫질도 처음이라 첫 낫질은 연습 수준, 두 번째 낫질은 감 잡은 수준, 세 번째 낫질은 ‘이제 좀 알겠다.’ 수준으로 벼 베기를 한 것 같다. 아마도 참여자들은 세 번째 낫질을 마치고 ‘좀 더 베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다.



벼 베기가 진행되는 동안 굳이백배미는 점점 사람들에게 둘러싸였다. 갑자기 펼쳐진 농(農)적인 광경에 지나가던 관광객들이 발길을 멈췄기 때문이다. 특히 아이가 있는 가족들은 체험 행사냐며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물어왔는데, “6월에 모내기했던 사람들이 추수하는 거라서요. 체험은 못 하고 구경은 가능하세요. 내년에 같이 모내기하면 하실 수 있어요.”라고 답했다. 진실로 모내기를 해야만 추수가 가능한 것이지만 체험을 문의한 사람 입장에서선 ‘내년에 모내기를 해야 추수할 수 있다고?’ 속으로 어처구니없게 느꼈을 것 같다.

겨우 8㎡의 논, 혼자서 해도 5분이면 끝날 추수를 여러

관광객들에게도 인기 많은 굳이백배미



굳이백배미 공동경작자들과 낫-들고 버-베기 풍경





벼-베기 후 세레모니(위) / 벼덕에 벼 걸어 말리기(아래)

사람들과 일싸덜싸하다 보니 한 시간 가량 소요됐다. 모든 벼가 베어지고 벼덕에 건 벼를 논 한가운데로 옮겨 놓으니 자연스러운 포토존이 됐다. 물끄러미 바라보며 ‘아, 정말 이렇게 한 해 농사를 같이 지었구나. 혼자였다면 지었을까? 혼자였다면 이렇게 재밌었을까?’ 하며 속으로 웃었다.

다음으로 이어진 벼짚 리스 만들기는 낭만적인 놀이었다고 표현하고 싶다. 만드는 이유에 대한 스토리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얘기도, 사람들이 리스를 만들어가는 과정도, 만들어서 가지고 가는 풍경도 모두 낭만적이었다.

여기 벼짚을 먼저 받으세요. 윗부분은 이삭이 달려있던 부분이라 낱알이 달려있는 애들도 있어요. 이 낱알은 수정이 안 돼 텅텅 비어있어 색이 옅은 초록을 띠고 있어요. 땅과 만나는 줄기 쪽은 색깔이 다양해요. 녹빛, 연둣빛, 살긋빛, 옅은 흙빛. 자연의 그라데이션을 볼 수 있어요. 향도 한번 맡아보세요. 무어라 표현할 수 없지만 왠지 포근하고 따뜻한 벼짚향이 나요. 우리나라 풍습에 아기가 태어나면 벼짚으로 만든 금줄을 대문 앞에 걸어두고 장 담근 항아리에도 금줄을 둘러줬어요. 모두 샅된 기운을 쫓고 행운과 복을 기원하기 위해서였죠. 오늘 벼짚 리스 만들면서 새해의 행운과 복을 빌어보세요.



건조를 위해 벅덕에 걸어 놓은 보리벼와 멧돼지쌀.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게 두 묶음을 이어서
벼덕에 걸어야 벼짚도 쌀알도 잘 건조된다. 너무
많은 양을 묶음으로 하여 벅덕에 걸면 통풍이 안
돼서 벼짚은 썩고 낱알에선 썩이 튈다. 자연스럽게
건조하는 과정은 맑똥의 인어를 빌리자면
벼를 꿈꾸게 하는 것이다. 잠든 벼의 낱알을 잘
보관해두면 범씨가 돼 모로 깨어나고, 도정을 하면
우리가 먹는 쌀이 된다.

만드는 방법은 먼저 벚짚으로 머리를 땅는 거예요. 벚짚을 세 갈래로 가르고 시작하면 되는데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서 꼬트머리를 번갈아 잡아주면 좋아요. 둘이서 벚짚을 살짝 당겨가며 땅으면 느슨할 때보다 더 잘 땅아져요. 세 갈래 땅는 법을 모르면 두 갈래로 땅아도 괜찮아요.

벚짚을 다 땅았다면 동그란 틀에 둘러서 고정시켜야 해요. 이삭이 달렸던 부분은 자연스러운 맛이 있고 줄기 부분은 가지런하니 그 점을 생각하며 디자인해보세요. 벚짚을 다 둘러었다면 가을 분위기의 소재를 드릴 테니 사이사이에 꽂으며 볼륨감을

둘이서 벚짚 묶기와 벚짚 땅기





벚짚 리스 만들기 골목길 풍경



벚짚 리스 만들기에 안성맞춤이었던 골목길 풍경

만들어보세요. 정답은 없어요. 만들고 싶은 대로,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어보세요.

벚짚 리스 만들기는 바람대로라면 PlanC 전시공간 또는 마당에서 진행되어야 했다. 허나 같은 날 전시가 겹쳐 PlanC 바로 옆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골목길을 섭외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산 작가님은 잔소리를 꽤 들었다고 했다. 무려 20분이나!

잔소리를 견뎌내고 섭외한 골목은 돌이켜보니 벚짚 리스 만들기에 ‘딱’ 이었다. 미리 만들어 놓은 샘플을 전시할 담장이 안성맞춤이었고, 좁은 골목이라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조성됐다. 게다가 골목을 오가는 통장님, 게스트하우스 사장님, 사장님의 친구분들까지 주민이 자연스럽게 벚짚 리스 만들기에 참여하게 됐다.

통장님은 자신이 만든 벚짚 리스를 대문 가운데에 달아 놓으시고 우리를 불러 보여주시기까지 했다. 대문 앞에 꽃나무들 설명도 해주시며, 자신이 얼마나 화분들을 정성 들여 키우는지 한참을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벚를 키우는 사람들이라 더 열심히 설명하신 듯하다. 무언가를 키우고 돌보는 이를 만난 반가운 마음!



딸과 함께 만든 벼짚 리스를 가방처럼 들고 가는 모습



담장에 전시 된 벼짚 리스



게스트하우스성심 대문 앞 벚짚 리스



통장님 집앞에 걸린 벚짚 리스

〈쌀-밥 짓기〉 생태예술운동을 하면서 나는 매 단계 단계마다 희미한 이어짐들을 감각했다. 마당에 놓여 있던 사용자공유공간planC의 구들장이 논이 됐을 때, 이 구들장 위에서 뜨끈함을 느꼈을 옛 주인은 누구였을까 생각했고, 오래도록 농사짓지 않던 흙을 퍼 올려 우리 논에 앉혔을 때, 이 흙이 가지고 있는 벼에 대한 기억은 무엇일까 궁금했다. 잊혔던 토종벼로 모내기를 했을 때는 보리벼와 멧돼지찰을 심고 길러 온 옛 농부들이 우리를 보며 기뻐할지, 논에 고인 물에 개구리가 찾아와 줄지, 전주 한옥마을 새들은 우리가 모내기한 사실을 알고 있을지에 대해 생각했다. 우리의 작은 논에 수십 명의 공동경작자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이 다시 모여 추수했을 때는 우리가 쌀-밥 짓는 행위로 이어져 있음에 희열감을 느꼈다. 벧짚으로 리스를 만들 때는 대문 대문마다 벧짚 리스를 걸어 놓는 상상을 하며 우리를 벧짚으로 이어진 공동체로 느끼기도 했다.

이렇게 문득문득 느껴지는 이어진 감각들이 나를 기쁘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 연결됨이 왜 나를 기쁘게 했는지는 뭐라 설명하기는 어렵다. 뭔가 인간적이고 생태적인 이 연결됨이 그저 좋았다고 할 수밖에. 이런 연결감 때문이었을까. 우리들의 〈쌀-밥 짓기〉 과정은 육체적으로는 힘들 때도 있었지만 때 순간 정신적으로는 기분 좋음, 편안함, 신이남, 즐거움, 재밌음



10월 22일 모든 일정을 마치고 PlanC 마당에서

같은 감정들로 이루어졌다. 이런 감정이 지속되는 한 우리 팀은
앞으로도 꼭 <쌀-밥 짓기>를 해나가지 않을까 싶다. 인간적이고도
생태적인 것들을 이어나가며 계속해서 그 연결됨을 무엇이라
표현할 수 있을지 스스로를 관찰하고 해석해나가고 싶다.

쌀
-
밥
짓기 4
단계

밥 먹는 날; 광주생태미식학교를 상상하는 집담회 현장 톺아보기



40여 명이 참여한 집담회

이하영
독립큐레이터이자 예술가로 역사적
기억과 공동체, 여성과 생태를 주제로 한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지속적인 리서치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협력하며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일시적 공동체와
협업의 방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광주와 충남 홍성 홍동마을을
오가며 농부, 학생, 예술가들과 함께
'농적작업'에 대한 실험을 지속하고 있다.

‘머리 한 날 이론’이라는 게 있다. 미용실에서 머리를 한 날에는 거리에서 사람들의 머리 스타일만 눈에 들어온다는 이론이다.¹⁾

한옥마을 한복판에 눈을 만들고 난 이후의 우리도 비슷했다. 8㎡ 남짓의 작은 논도 논이라고 ‘굳이백배미’라 이름 붙인 구들장 눈을 만들고 나자 ‘논’과 ‘쌀’에 관한 것들이 유독 눈에 들어왔다. 길을 걷다 구들장처럼 생긴 납작한 돌을 마주칠 때면 ‘논 만들기 좋겠는데?’라고 생각할 정도였으니, 우리도 이런 현상을 ‘논 만든 날 이론’으로 설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태미식학교〉의 저자 김현숙 선생님을 알게 된 날도 그랬다. 우연한 만남이 어떤 계시처럼 다가올 때가 있다. 광주와 충남 홍성의 시골마을 흥동을 오가며 작업을 진행하던 차에 마을에서 ‘생태미식’에 관한 강의를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다. 눈을 만들어 놓고도 이게 어떻게 요리와 예술, 그리고 교육을 하나로 엮어내는 활동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상황이었기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싶어 강의가 열리는 마을 도서관을 찾았다.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강의를 들으며 생각했다. ‘이

1) 한창호(건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 교수)



김현숙 선생님 저서 〈생태미식학교〉를 살피볼 수 있도록 한 테이블(위)
사군의 책에 사인하는 김현숙 선생님(아래)

이야기는 요리와 이야기 팀원 모두가 들어야 한다!’ 강의를 듣는 내내 우리의 작은 눈이 떠올랐다. 역시, ‘논 만든 날 이론’은 제법 정확했다.

그날 강의에서 마음에 쏙힌 표현은 ‘입맛이 평등한 나라’였다. 건강한 먹거리가 무엇인지 알고 내 식탁에 관심을 갖는 식습관 교육이 어찌면 국가 민주화의 첫걸음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광주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인권’이나 ‘평등’ ‘민주’ 등 광주라는 도시가 앞세우는 가치를 나누고 교육할 때 음식이 매개가 된다면 어떨까? 김현숙 선생님을 광주에서 한 번 더 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광주문화재단 창의예술교육랩 지원사업 덕분에 우리에게선 예산도, 장소도, 시간도 있었다. 때마침 추수를 마치고 도정한 쌀을 사람들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해 보려던 참이었다. 밥을 지어 나눠먹고 ‘쌀-밥 짓기’ 프로젝트를 돌아보는 것에서 나아가 김현숙 선생님을 모시고 ‘요리와 이야기’가 안고 있는 고민 지점을 깊이 들여다본다면 어떨까. 곧바로 <생태미식학교> 스터디에 들어갔고 ‘음식시민’, ‘푸드리터러시’와 같은 개념을 함께 공부했다. 책을 덮고 나서는 생태미식교육, 미식교육을 예술 프로젝트로 확장한



굳이백배미 논에서 수확한 멥돼지찰과 보리벼



집담회 당일 행사 준비 모습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더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행사 진행 방식과 내용을 구성하고 타임테이블을 작성했다. 이후로는 일사천리였다. 각자가 잘하는 일을 찾아 ‘알아서’ ‘잘’ 준비했다. 라라는 케이터링 담당자를 공들여 섭외했다. 준비된 음식이 단순히 집중을 돕는 간식이 아닌 프로그램 기획 취지와 의미를 곁들일 수 있는 ‘먹기’가 되면 좋겠다는 이유에서였다. 매통은 밥을 지을 토종쌀과 일종의 이스터에그²⁾ 역할을 할 씻나락을 준비했다. 이산은 시각자료를 재생할 모니터 설치 등 테크니션 업무를 도맡았고 사군은 사회자로서 프로그램 진행을, 하영은 집담회 분위기를 조성할 센터피스와 안내물 제작을 맡았다. 이선은 행사 당일 원활한 진행에 필요한 각종 사소한 일들을 처리했다.

준비한 4시간이 눈에 물 빠지듯 단숨에 흘러갔다. 참여자들은 센터피스를 중심으로 얼굴을 마주 보고 둥글게 모여 앉았다. 사군이 ‘요리와 이야기’ 팀 소개와 함께 구들장논을 만들어보자고 결정하던 날부터 추수하던 날까지 경작의 과정을 사진과 함께 소개했다. 이어진 김현숙 선생님의 강의는 매일 먹는 음식, 좋아하는 음식으로 옆 사람을 소개하는 지미지기(知味知己)

2) 이스터에그(Easter Egg) 개발자나 창작자가 의도적으로 감춰놓은 재미요소. 깨알 같은 재미를 말한다. 부활절 날 집안이나 정원에 부활절 달걀을 숨겨놓고 아이들이 찾도록 하는 풍습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참여자들을 위해 준비한 이야기가 담긴 케이터링 음식들

활동으로 문을 열었다. 음식이 어떻게 우리의 창의력을 깨우는지, 밥상 주권을 지키는 일은 어떻게 공동체를 지키는 운동이 되는지, 먹거리를 통한 배움의 가능성은 얼마나 무궁한지에 대한 이야기가 1시간 반 가량 이어졌다. 논을 만들고 경작을 하며 몸으로 경험한 것들이 선명한 언어로 정리되어 돌아오는 순간이었다.

잠깐의 휴식시간은 메뉴 하나하나에 이야기를 담아 준비한 케이터링 음식과 함께했다. 토종쌀 참송이주먹밥과 유기농 앓은키밀, 공정무역 카카오로 만든 브라우니, 100년 만에 복원된 토종잡쌀에 토종콩과 밤, 약대추를 넣어 만든 약밥 등 준비한 음식을 보자기로 포장해 각자의 자리로 가져가 먹을 수 있도록 했다. 최초의 SNS는 사람들이 둘러앉아 음식과 대화를 나누던 모닥불이었다는데, 참여자들이 토종벼와 각종 주방집기로 연출한 센터피스 주위로 모여 앉아 음식을 맛보고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 ‘과연 그랬겠구나’ 싶었다.

수확한 쌀로 밥을 지어 시간을 들여 음미하고 각자의 생각을 나누는 맛 경험의 시간도 가졌다. 같은 밥을 먹게 맛나 싶을 정도로 다양한 표현이 쏟아졌다. 우리가 수확한 쌀은 ‘탱글탱글’ 하고 ‘쫄쫄’ 했으며 ‘까실까실’ 하고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맛이었다. ‘우물 같은 색’과 ‘연한 쑥향’을 지닌



굳이백배미 논에서 수확한 쌀을 함께 맛보고 이야기 나누는 참여자들

‘카카오맛’과 ‘햇별의 향’을 느낄 수 있는 쌀이었다. 누군가는
 웅기를 빚는 일에 빚대어, 또 다른 이는 어릴 적의 추억을 떠올리며
 맛을 표현했다. 살아온 삶과 가진 경험이 다르니 이토록 다양한 맛
 표현이 나왔다. 우리는 쌀을 수확해 나뉘을 뿐인데 참여자 모두가
 진솔한 ‘나’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내내 광주가 이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각자가 느끼는 맛에 정답이 없듯, 옳고 그름의
 판단 없이 모두의 목소리를 초대하고 안전하게 발언할 수 있는 곳을
 만드는 일은 어쩌면 쌀 한 톨에서 시작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창의랩 사업이 진행되는 내내 참여자 모두를 괴롭혀온 ‘예술이
 광주를 바꿀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는 그렇게
 막연하지 않았다. 무엇을 어떻게 먹을지 고민하는 일은 내가 사는
 도시가 어떤 곳이 될 수 있을지를 상상하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굳이 논을 만들고 모내기를 하고 추수를 하고 밥을 지어
 먹으며 깨달은 것이다.



집담회 진행모습

p.s.

씻나락 까먹는 소리

애초에 쌀이 밥이 되어 입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눈부터 만들어 보겠다는 시도가 누군가에게는 씻나락 까먹는 소리처럼 들렸을지도 모른다. 깨알 재미 요소로 준비한 ‘씻나락 까기’를 통해 도정되지 않은 쌀 껍질을 직접 벗기는 경험을 선물하고 싶었다. 핸드 드립이 아닌 핸드 도정이었다. 씻나락 까기는 어수선했던 거라는 우려와 달리 행사의 꽃이 됐다. 참여자들은 4시간 동안 쉼 없이 손을 움직였다. 단순 행위의 반복은 외려 방해 요소를 차단하고 집중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씻나락 까는 행위가 ‘힐링’이었다고 말하는 참여자까지 있을 정도였다. 어린이·청소년 ADHD 진단율이 폭증하고 우울감을 느끼는 청년들도 늘어나고 있다던데 이참에 마음챙김과 집중력 강화를 위한 키트를 개발해 보면 어떨까. 각종 교육기관과 복지센터에 씻나락 까기 키트를 납품하는 대담한 상상을 해본다. 아, 이것도 너무 씻나락 까먹는 소리처럼 들리려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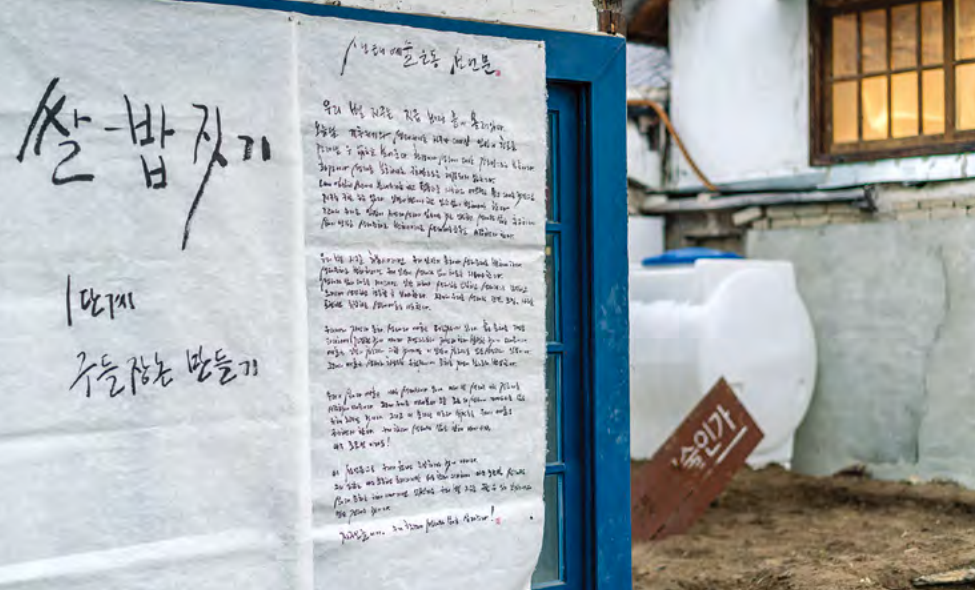
집담회 진행모습

〈쌀-밥 짓기〉의 공론장

이선
미학을 전공하여 대학에서 철학을 강의하고
지역사회에서는 어린이들과 함께 다양한
인문예술교육활동을 하면서 어린이들의
시선과 방법을 배우고 있는 중이다. 현재
여성과 생태를 테마로 이론적 작업을 하고
있다. 비평과 교육활동 외에 예술가들과
직접적으로 함께 한 작업으로는 이번이
처음이라 어떨떨하고 예술가들의 활동력과
창의력에 지금도 놀라고 있는 중이다.

너무나 다른 장르와 생각을 가지고 각자 예술에 한 발씩
담그며 살아가고 있는 예술가들이 모여서 〈쌀-밥 짓기〉라는
타이틀을 걸고 도심 한복판에 구들장 논을 만들고 벼를 길러 쌀을
추수해서 밥을 지어 먹기로 했다. 적어도 1년, 어쩌면 평생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작업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좋아하지 않았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야심 찬 계획이었다. 되돌아보면 우리의 작업은
늘 공부와 함께하는 작업이었고, 그 공부라는 것도 말이 공부이지
공부를 핑계로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맞추어보는 토론 작업이었다.
그리고 이 토론에는 상상과 위트가 함께 했기에 늘 신나고
재미있었다. 그래서 이 글은 우리가 벌였던 여러 활동 이외에
우리와 항상 함께했던 우리의 토론과 고민들을 ‘공론장’이라는
거창한 표현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우리의 공론장은 내부적인 논의들과 진짜 공론장으로
나뉜다. 〈쌀-밥 짓기〉 작업을 착수하기 전 우리는 내부적으로



구들장 논 만들기가 과연 예술인지, 이것이 과연 예술이라면 어떻게 명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토론하였다. 그리고 오랜 토론 끝에 우리의 구들장 논 만들기가 생태예술운동의 하나라고 확신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활동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 <생태예술운동 선언문>을 작성하였다. 우리가 뭔가 거창한 것을 한다고 선전하려고 선언문을 썼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들 스스로가 이 작업에 의미를 부여하는 시간이 길었던 만큼 그 생각과 다짐을 분명하게 해 두기 위해 선언문을 작성하고 공표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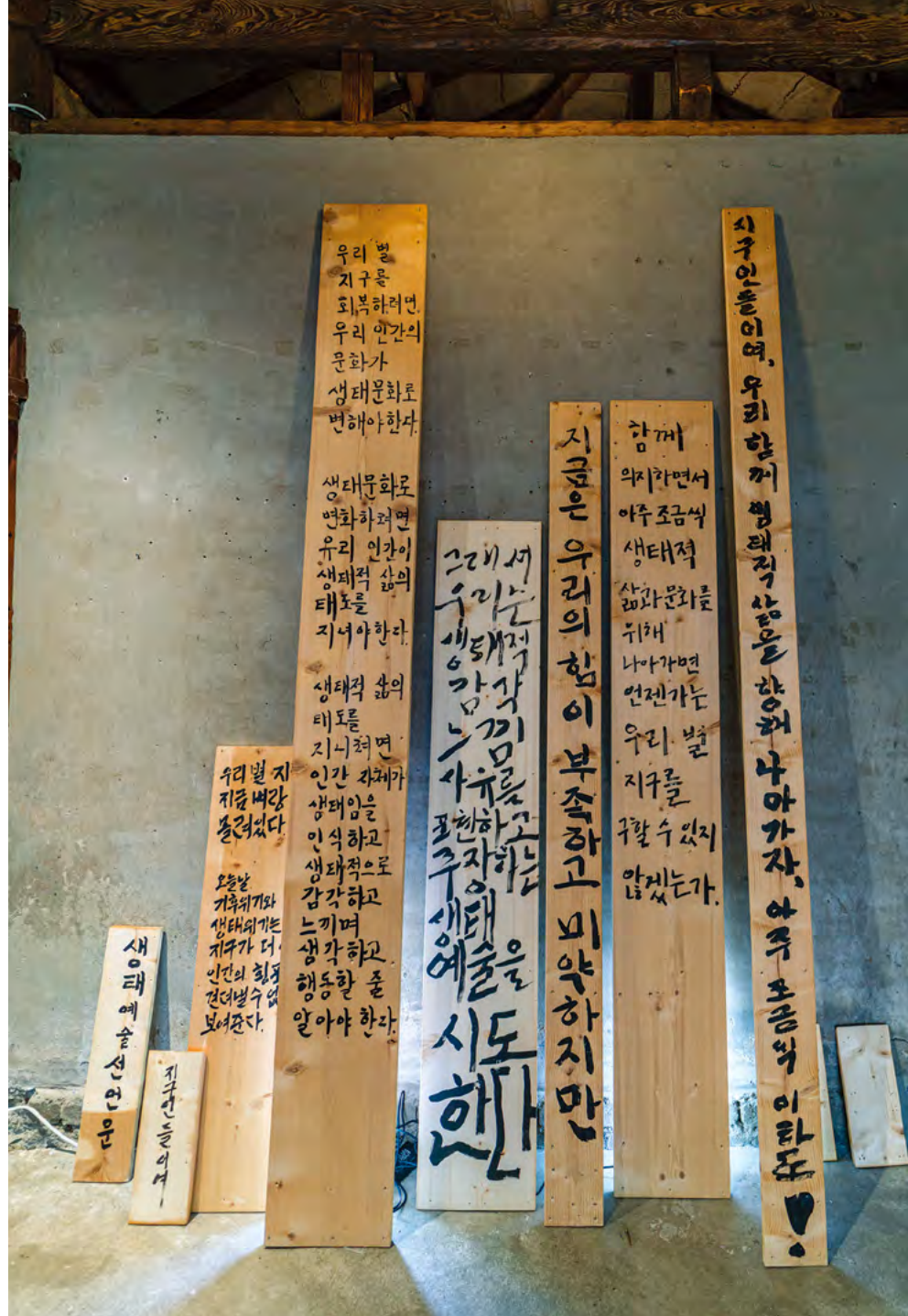
다른 한편으로 선언문도 공표하고 구들장 논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세 번의 ‘진짜’ 공론장을 열었다. 첫 번째 공론장은 구들장 논을 만들었던 당일 저녁 토종 씨앗을 지키기 위해 평생 노력해 오신 <토종씨드림> 대표 변현단 선생님을 모시고 토종 씨앗의 의미에 대해 강연을 듣고 토론했다. 두 번째 공론장은 모내기하는 당일 오전에 열렸는데, 우리는 어떻게 구들장 논을 만들게 되었는지의 과정을 되돌아보며 그 의미에 대해 조금 더 심층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 세 번째 공론장은 벼를 추수할 시기가 다가올 즈음 구들장 논이 위치한 전주에서 열린 <스태이 플리쉬>라는 축제 안에 부분 집담회로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구들장 논을 만들고

모내기를 한 이후의 우리 자신의 삶과 생각 그리고 활동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발표하고 청중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었다. 생태예술운동이라는 거창한 선언문으로 출발한 구들장 논 만들기와 ‘굳이백배미’의 모내기 그리고 ‘낮-들고 벼-베기’의 벼베기는 단순히 활동만의 현장이 아니라 생태예술과 생태문화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고민이 오가는 공론장이었다.

1) 우리 내부의 공론장:

다양한 예술가들이 모여 생태예술운동을 고민하다

사실 우리가 구들장 논을 만들게 된 것은 밭똥(김영대)의 정미소의 구들장 논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였다. 진짜 우연한 계기로 도심 한복판에 구들장 논을 만들고 모를 심고 벼를 기르게 되었던 것이다. 우연하게 시작한 만큼 우리 내부에서는 구들장 논을 만들고 벼를 키우는 것이 과연 ‘예술’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끊임없이 논의했다. 여러 번의 세미나를 통해 구들장 논 만들기의 작업이 왜 예술 활동이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했다. 예술 활동은 퍼포먼스와 같이 장르로서의 작업 활동뿐만이 아니라 가치를 지닌 메시지를 던지고 실천하는 일상적인 활동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했다.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도시에서 대안적 방식으로
 농사짓는 땀뚱의 실천도 예술 활동, 전주 한옥 마을의 한복판에서
 적산가옥을 예술가들을 위한 전시 공간으로 공유하는 이산의
 노력도 예술 활동이라는 것이다. 예술 활동에 대한 확장적 표현이
 분명해지면서 우리는 구들장 논 만들기라는 작업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도대체 구들장 논 만들기는 무엇을 말하려는
 예술활동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 또한 오랜 토론 끝에
 생태위기에 맞서 생태적 감각과 생태적 삶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생태예술운동이라는 점에서 우리 작업 활동의 의의와 정당성을
 설명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제시된 것이 바로 <생태예술운동
 선언문>이다. 우리는 이 선언문에서 <쌀-밥 짓기>의 모든 활동이
 단순히 생태운동이나 생태문화운동이 아니라 생태적 감각과
 생태적 삶의 의미를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유혹하고 부추기는
 생태예술운동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오늘날 구들장 논에서 벼를 기르는 우리의 활동이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왜 중요한지에 대해 질문했다. 구들장
 논에서 토종 벼를 기르는 우리의 활동은 근대 산업화 과정에서
 사라져간 토종 씨앗과 만나는 계기를 만들었고 생존만을 위해
 먹고 사는 농사가 아니라 우리의 생태적 감각을 살리고 삶을
 살리는 방식으로 벼를 기르는 활동을 다르게 접하게 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또한 인류세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도심의

한복판에서 구들장 논을 만들고 벼를 기르는 작업도 생태적 가치가
 실현되는 현장으로서 생태예술운동의 시도임을 드러내고자 했다.
 요즘 사람들에게 아주 낯선 토종 벼와 모내기 및 추수 과정을
 선보이는 것은 매일 우리의 밥상에 오르는 밥이 지닌 생태적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잠들어 있던 우리의 생태적 감각과 생태적 삶의
 태도를 깨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2) 구들장 논 만들기 과정에서의 공론장: 변현단 선생님의 강연과 토론

구들장 논을 만들던 날 저녁, 종일 삽질하고 돌 나르고 흙
 다지고 다들 피곤할 법도 한데 <토종씨드림> 대표이신 변현단
 선생님을 초청하여 토종 씨앗에 대한 이야기, 토종 씨앗 살리기
 운동을 하시게 된 이야기 그리고 토종 씨앗의 인문사회적 가치에
 대한 강연을 들었다. 현재 귀농을 준비하거나 전북대에서 생태
 농법을 공부하는 분들도 강연에 오셔서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셨다.

변현단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종묘상에서 접하는 씨앗은
 대부분 개량된 씨앗들이며 지금도 많은 토종 씨앗들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토종 씨앗을 그 기원에서부터가 아니라 외래종과의 구별 속에서 우리 땅에서 50여 년 자란 종자로 폭넓게 규정하자고 제안하셨다. 개인적으로 변현단 선생님께서는 옥수수 씨를 심고 고생하다 토종 씨를 찾기 시작하면서 토종 씨앗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사라져가는 토종 씨앗 대부분은 할머니들이 보존하고 계시는데, 평소 할머니들과 소통이 비교적 원활하셨던 선생님께서는 토종 씨앗을 살리는 일에 매진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다고 했다. 선생님께서는 ‘삶과 우주는 온통 씨앗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며 세상은 온통 씨앗이며 생명이기에 우리 자신도 씨앗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생태는 자연의 스스로 그리함이 순환적으로 실현되는 것이기에 생태예술은 가장 낮은 데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실천되어야 한다고 조언해주셨다. 토종 씨앗에 대한 이러저러한 토론 말미에 변현단 선생님께서는 구들장 논을 만든 우리 생태예술가들에게 연신 감동적이라며 칭찬하시면서 무한한 응원과 함께 토종 씨앗을 통해 무엇이든 돕겠다고 약속하셨다. 우리는 이 첫 번째 공론장을 통해 우리의 활동이 중요하다는 확신을 얻었으며 작은 구들장 논이지만 여기에서 토종 씨앗을 기른다는 한 움큼의 자부심도 갖게 되었다.

3) 모내기 날 히스테리안과 함께 콜라보: '굳이백배미' 공론장

‘출몰지’를 키워드로 아르코 공공예술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히스테리안 출판사 친구들(강정아, 김은성, 황바름)의 제안으로 모내기를 하는 날 오전에 모여 굳이 또 공론장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맏뚱은 자신을 ‘도시에 출몰하는 농부’로 소개하면서 자신이 왜 도시에서 농사를 짓게 되었으며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도시에 출몰하는 농사를 짓고 있는지 소개했다. 맏뚱의 도시 농사의 시작은 아파트의 무분별한 건설 이후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던 한새봉의 다랭이 논들을 시민들의 공원으로 되살리는 일련의 사건들과 연결된다. 지금은 청소년들과 함께 한새봉 다랭이 논을 경작하고, 뜻 있는 시민들과 함께 멧돼지와 공생하고자 하는 <멧돼지와 함께 춤을>이라는 기획으로 무등산 자락에 멧돼지 논을 공동 경작하고 있다. 또한 이하영 작가는 ‘농적인 작업자들’이라는 타이틀로 우리가 벌이는 구들장 논 농사를 포함하여 농사에 관련된 이러저러한 험한 일들을 ‘농적이다’이라는 표현으로 부르자고 제안했다. 하영 작가는 광주에서 작품 활동과 기획을 시작했지만 어린 시절 자란 농촌 마을 흥동에 이제 막 예술 공간을 열고 이러 저러한 농적인 일들을 벌이고 있다. 그 이후에 나는 ‘생태예술운동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왜 예술적 활동이 삶의





시간	장소	내용
11:00~11:15	볼펜C	안녕과 인사 김은성(히스테리안), 이선(사물자공공공간 planC 시무지)
11:15~11:55		발표1. 도시에 흠뻑하는 농부 박영(농부) 발표2. 농적(農的) 작업자들 이화영(아티스트, 독립 출판가)
11:55~12:10	전미복도 관주사 관산구 관행로 30	휴식
12:10~12:50		발표3. 생태예술운동의 필요성 이선(전통대 철학 강사, 미학연구자) 발표4. 지역: 장론 경계선이 '도시로 예술하기' 박수현(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팀 차장)
12:50~13:00		휴식
13:00~14:00	현장탐어	토론 및 질의응답 강영아, 황바람 (히스테리안), 김동희, 황인(아티스트)
15:40~18:00		모내기 행사 (전주기립농예보존회, 모내기, 반고개일 등)

대입하지 않는 전한한 김의 물 밑에서
물밑작업

공공예술 주제심화형 프로젝트 <육장이 빠져나간 자리: 습물지>는 도시 개발과 발전, 성과지표 등 그동안 지표에 담기지 않았던 이야기를 모아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소멸은 인구 숫자로 건금성이 결정되지만, 순환하지 않고 고여있다면 또 다른 형태의 소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서울은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이 모여드는 곳이지만 '리더십', '힘' 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복사되고 있어 오히려 고유성이 '소멸' 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공론장 <물밑작업>에서는 지역과 행정경계를 넘나드는 예술적 교류를 통해 고유성과 개별성을 지키는 '지역의 생성'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환경과 생태의 의미를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하고 확립화된 층으로 단일하게 집단화되고 있는 현상을 분석합니다.

진행: 히스테리안(강영아, 김은성, 황바람)
대입하지 않는 전한한 김의 물 밑에서

'히스테리안'은 2018년부터 성, 색, 노동, 구조의 영역에서 작동하고 있는 개념을 탐구하여 그것이 감지하는 사회적-정치적 의미를 세미나, 출판, 전시 등 프로젝트로 구현한다. 독립 기획자로 활동하는 강영아, 김은성, 황바람은 공공예술, 생활문화, 장애예술, 거버넌스 등 예술과 맞닿는 삶의 실천성에 관심을 두고 있다. 도시와 지역 간의 격차와 간극을 완소 노력하며 2022년부터 <예술로 가로지르기-육장이 빠져나간 자리: 습물지> 프로젝트를 공동 기획하고 있다.

발표자: 박영
대입하지 않는 전한한 김의 물 밑에서

발표1. 도시에 흠뻑하는 농부

"땅을 소유하지 않고 농사를 짓는다." 농사짓기 용이한 대와는 거리가 먼 농지가 내게로 온다. 숲속에 있어서 야생동물들의 피해가 빈번한 곳, 구불구불하고 작아서 기계화가 어려운 곳, 오랫동안 묵혀진 땅 등이 내가 농사짓고 있는 농지다. 농사를 지으며 확인하는 것은 내가 농사짓는 농지는 몇제자, 고리나들의 먹이더라는 것이다.

발표자: 이선
대입하지 않는 전한한 김의 물 밑에서

발표3. 생태예술운동의 필요성

"생태적 전환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예술 실험으로" 전북대 철학과 강사, 미세철학과 감성 미학 전공자,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문예술교육에 많은 관심이 있음, 현재 현대예술철학과 생태환경운동의 연관성을 생태예술운동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발표자: 이화영
대입하지 않는 전한한 김의 물 밑에서

발표2. 농적(農的) 작업자들

사각예술가이자 독립유튜버로 역사적 기억과 공동체, 커먼즈와 생태를 주제로 한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지속적인 리서치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협력하며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일시적 공동체와 협업의 방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광주), 새창라운지(제주), 예술공간 사로(서울) 등에서 단체전을 가졌다.

발표자: 박수현
대입하지 않는 전한한 김의 물 밑에서

발표4. 지역: 장론 경계선이 '도시로 예술하기'

"참상 격하게 늘 공리를 하는 사람"으로 모든 일에 '저미' 무라'하고 변인 길 보다는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걷고자 한다. 10년 넘게 문화행정 업무를 하며 최근에 내 역할이 '문화 매개자'임을 깨달았다. 모든 상황에 몰입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생태적 변화를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발표했다. 자연친화적인 환경운동이나 자연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는 생명운동과는 달리 사회적인 차원의 생태적 활동이 주가 되는 생태운동에는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변화를 추구하는, 그리고 그 변화를 촉발하는 예술운동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을 말 그대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있는 광주문화재단의 박수현 차장이 우리가 참여하는 창의랩 사업을 어떤 고민 속에서 기획하여 우리의 구들장 논농사와 같이 ‘지역, 장르 경계없이 도시로 예술하기’의 과정을 끌어내었는지 소개하였다. 창의랩 사업 초기에 ‘요리와이야기’라는 팀으로 열기설기 모인 우리들은 자유롭게 기다려주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한참 동안 도대체 우린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했었다. 그러나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 ‘역시 박수현 차장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라고 말하게 되는 든든한 뒷배가 있었던 것이다. 이 든든한 지지와 생태예술운동이라는 거창한 핑계 그리고 도시 출몰 농부와 함께하는 농적인 작업자들의 신나는 빨랫줄이 지금 우리 구들장 논농사를 가능하게 만든 것은 아닐까.

4) 벼를 추수할 즈음:

2023년 10월 스테이플리쉬의

〈굳이백배미 모내기 그 이후〉 공론장

예술가들은 무지 바쁘다. 백수가 가장 바쁘다는데 어쩌면 예술가들이 더 바빠지도 모르겠다. 이유 없이 그냥 바쁜 백수와는 달리 예술가들은 늘 이유 있게 항상 바쁘다. 구들장 논을 만들었고 모내기를 했고 이제 10월이 되었으니 슬슬 추수를 준비해야 했다. 추수는 해야만 하기에 다시 우리 팀이 모일 자연스러운 계기가 필요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주 남부시장 공터에서 개최된 예술축제인 스테이플리쉬에서 세 번째 공론장인 〈굳이백배미 모내기 그 이후〉를 개최하게 된 이유이다. 하나도 거창할 것이 없는데 우리가 벌이는 일엔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다. 그날도 이러저러한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졌다.

6월에 모내기를 하고 우리들끼리도 4개월 만에 만나는 것이기에 우리의 공론장에 대한 기획은 단순했다. 모내기 이후 다들 어떻게 사는지 15분 브리핑을 하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각자의 브리핑을 통해 구들장 논 만들기과 모내기 이후 각자의 삶이 어땠는지 서로의 안녕을 묻는 자리이기도 했다. 나는 〈생태예술운동 선언문〉 이후 쓰게 된 논문과 글을 소개했다.







2023년 스테이폴리쉬

요리와 이야기<쌀-밥 짓기>

1단계: 굶이백배미(구들장 논) 만들기

2단계: 모내기

2022년 10월, '요리와 이야기'라는 주제로 모인 8명의 낯선 존재들.

시각예술가, 퍼포먼스예술가, 미학자, 얼터너티브 드러머, 국악가, 작곡가, 농부, 음식교육가.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 '요리'라는 주제 아래 도시로 예술하기를 작당했다.

2023년 1월, 우리는 생태예술운동 <쌀-밥 짓기>를 시작하여 전주한옥마을 한 가운데 3평 남짓한 '굶이백배미(구들장 논)'를 만들고 6월 4일 토종벼 모내기를 했다. 3평의 작은 논에 굶이, 100명의 공동경작인을 모아 모내기를 했다. 굶이백배미 모내기 그 이후, 우리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변화까지는 아니어도 좋다. 우리는 모내기 이후 어떤 일상을 살아냈을까?

굶이백배미 모내기 그 이후

일시_2023년 9월 1일(금), 16:00~18:00

장소_전주 남부시장 스테이폴리쉬 행사장

16:00~16:10	요리와 이야기<쌀-밥 짓기> 팀 소개	라라/음식철학교육가
16:10~16:25	생태예술운동 선언과 그 이후	이선/미학자
16:25~16:40	사진기록자의 생태활동	강철/사진가
16:40~16:55	맑똥의 공유 삶터	맑똥/도시출몰농부
16:55~17:10	@@! 농적 작업자들 최신근황 ★Update★	이하영/시각예술가
17:10~17:25	토종쌀 맛경험 프로젝트	라라/음식철학교육가
17:25~17:40	굶이 논 만들어 모심고 축제를 벌이고	이산/문화기획자
17:40~18:00	질의 응답 & 맺음말	라라/음식철학교육가

‘도시출몰 농부’ 맑똥은 요즘 광주 예술가들의 반열에 끼게 되었단다. 이제 명실공히 광주의 대표적인 생태예술가로 불려도 되지 않을까. 원래 우리 팀일 뻔했지만 이젠 그냥 우리 팀원이 되어버린 강철 사진가는 요즘 작업했던 생태예술에 관한 사진 작품들을 소개했다. 하영 작가는 홍동에서 열린 감자파티와 전시회를 소개했으며 이러저러한 앞으로의 계획을 소개했다. 우리의 팀장 라라는 하영 작가와 함께 콤부차 만드는 활동과 토종쌀로 젤라토를 만드는 활동을 소개했다. 모두들 모내기 이후에 나름의 방식으로 생태예술운동을 펼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년 만에 다시 이 스테이폴리쉬라는 큰 행사를 벌인 이산 작가는 우리의 <쌀-밥 짓기>의 구들장 논을 만들고 모내기를 했던 활동이 이 스테이폴리쉬 행사를 다시 시작하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였다고 소개했다. 구들장 논 만들기 당시 거주가능성 조건에 대해 고민하면서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 대한 의미를 깊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우리의 활동이 물론 순전히 이산 작가의 노고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 커다란 예술가들의 지역 축제를 다시 열도록 만든 기폭제가 되었다니 아주 뿌듯했다. 이 공론장의 뒷풀이 자리에서는 자연스럽게 추수 시기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우리는 구들장 논으로 서로 엮인 사람들이다. 우리는 공동체까지는 아니지만 구들장 논이 공동 경작자로서 서로

적절하게 의지하면서 엮여 있는 이 관계가 좋다. 서로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적당히 기대되는 정도의 활동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서로의 안녕을 묻는 공론장과 구들장 논의 경작 그리고
재미있고 신나는 여러 활동들과 함께 우리는 열기설기 적당히
적절하게 이런 식으로 계속 만나게 될 것 같다.

구들장 뜰논 굳이백배미 돌봄일지

이선
전라북도 전주에서 활동하는 미디어
아티스트이자 퍼포머로 활동한다. 전주
한옥마을 내 사용자공유공간 planC를
운영하며 다양한 문화예술의 확장에
고민한다. 사용자공유공간 planC는
공적 지원을 받지 않고 대관의 의미보다
사용자의 행위에 주목한다.

여기 도심한복판에, 아니 한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부러워한다는 관광지, 요즘 말로 하면 도시재생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대표적인 사례인 전주한옥마을 한복판에
‘굳이백배미’ 라는 이름을 가진 구들장논이 생겼다. 굳이백배미의
크기는 약 17㎡이지만 경작가능한 영역은 8㎡로 25cm 간격으로
약 150개의 모를 심을 수 있는 도심속 논이다. 생산수단으로써는
너무나 보잘 것 없는 이 작은 구들장논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보고자 하는 것일까?

너무나 짧은 기간 동안 두서없이 대단히 즉흥적인 제안과
실행, 뚜렷한 목표도 없이 어찌면 한없이 가벼운 이 행위가 인류세
또는 신기후체제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행위로
전환될 지는 알 수 없다. 이 행위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환경운동에 기초하는지, 비경운농법이나 유기농 농법에 아니면
육류소비에 대한 비판적 실천에 기초하는지 또는 식량주권을



사용자공유공간planC 전주시 완산구 은행로 30

사수하는 싸움에 기초하는지, 탈지구를 꿈꾸는 자들에게 지구의 거주가능성을 설파하는 브뤼노 라투르의 생각에, 인간의 삶을 위해 여전히 지구경영을 외치는 또는 기술발전에 여전히 미래 인류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외치는 이들에게 최후통첩을 보내는 행위에 기초하는지 지금은 단정짓기 어렵다. 다른 한편으로 사용자공유공간planC에 벌어지는 이 행위가 외부자원 획득을 위해 오늘도 예산 따내기에 열중하는 지자체에게 더 이상의 요구가 무의미해 보이는 상황에서 지구거주가능성을 위한 즉각적 실천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아무튼 우리는 구들장논 굳이백배미를 만들었고 2023년 6월, 모내기를 하고 10월엔 보리벼와 멧돼지찰을 수확하고 12월엔 생산된 쌀로 밥을 지어 먹었다. 굳이백배미는 농지라기보다는 실천을 위한 질문, 물음에 대한 실행, 관계에 관한 문제제기이다. 우리는 굳이백배미에서 토종쌀 벼농사를 시작하면서 농업으로서의 농사가 아니라 예술행위이며 생태예술운동임을 선언하고 약 6개월동안의 돌봄일지를 작성한다.

쓰레질 하던 날

05.29.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비가 오는 날 첫 농사의 시작은





썰레질이다. 집에 있던 작업용 장화, 삽, 쇠스랑과 오래전 대형
할인매장에서 구입한 우비를 챙겨 들고 굳이백배미로 향한다. 썰레
질이란 모내기 하기 전에 단단하게 굳은 논을 뿔로 만들어주는
작업으로 20~30cm가량의 뒤집힌 흙이 물과 섞여 흙탕물을 만들고
흙탕물의 침전과정에서 고운 흙이 표면 위에 남아 뿔을 만들어 준다.

5월 29일 뿔뿔과 돌이서 축축하게 젖은 땅을 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지 땅을 파는 수준이어서 어렵지 않았지만 물을 대고
나서는 왜 일반 장화가 아닌 물장화를 신어야 하는 지 알게 되었다.
몸의 무게로 땅 밑으로 깊게 파묻힌 발은 잘 빠지지 않았다. 더구나
일반 장화의 밑창부분이 자꾸만 흙에 걸리면서 강렬한 저항을
주어 발을 빼는 행위를 더욱 힘들게 한다. 뿔로 변한 8제곱미터의
작은 땅이 이제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논이 되었다. 흙탕물이
뿔아지면 논은 작은 연못으로 변하고 땅 위로 하늘이 내려앉는다.
내려앉은 하늘 위에 보리벼와 뿔돼지찰 모판을 띄워 놓고 모내기를
기다린다. 보리벼, 뿔돼지찰의 모는 각각 200모를 준비했다.
구들장논 '굳이백배미' 모내기를 5일 남겨두고 모내기 참여
신청하신 분이 30명이 넘어선 때이다.

청개구리가 이런 마음이었을까?

05.31_06.03

하지만 이틀 지난 5월 31일 나는 강가에 묘 쓴 청개구리가



되었다. 이틀 전만 해도 하늘을 가득 담고 있던 논이 작은 웅덩이도 없이 물컹물컹한 땅이 되어 버렸고 논 가운데로 손가락 크기의 구멍이 선명하다. 땀뚱에게 전화를 건다. '물이 하나도 없다' 고, 그제야 땀뚱이 알려준다 '물이 빠지는 건 당연하다' 고, 다만 '너무 빨리 빠지는 듯하다' 고, '다시 물을 대고 씨레질을 반복' 하라고 한다. 부랴부랴 빗물저장통의 수도를 열어 물을 대고 씨레질을 한다. 처음 씨레질보다는 힘들지 않지만 밭은 더욱 깊숙이 빠지고 무겁다. 아무래도 내일은 진흙으로 미장작업을 해야 할 듯하다. 6월 1일 진흙 5가마니를 사들고 돈독과 논 바닥주위로 미장 작업을 하고 나니 굳이백배미가 빨갭게 단장되었다. 지나가던 형을 붙들어서 사진을 부탁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다. 내일 다시 와봐야 한다. 6월 4일 모내기 전까지는 걱정을 놓을 수가 없다.

모내기 하던 날

06.04

6월 4일 드디어 모내기를 한다. 구들장논은 광주문화재단의 지원으로 만들어졌지만 모내기부터는 공동경작자인 라라, 땀뚱, 사군, 이산, 이선, 이하영, 강철의 몫이 되었다. 논을 만들었으니 당연히 모내기를 하고 돌보고 추수를 하고 밥을 지어 먹을 때까지 함께하기로 한 7인이다. 사전준비로 포스터제작과 홍보, 참가자 모집, 풍년기원 기접놀이 섭외, 영상촬영 섭외, 새참으로 떡 주문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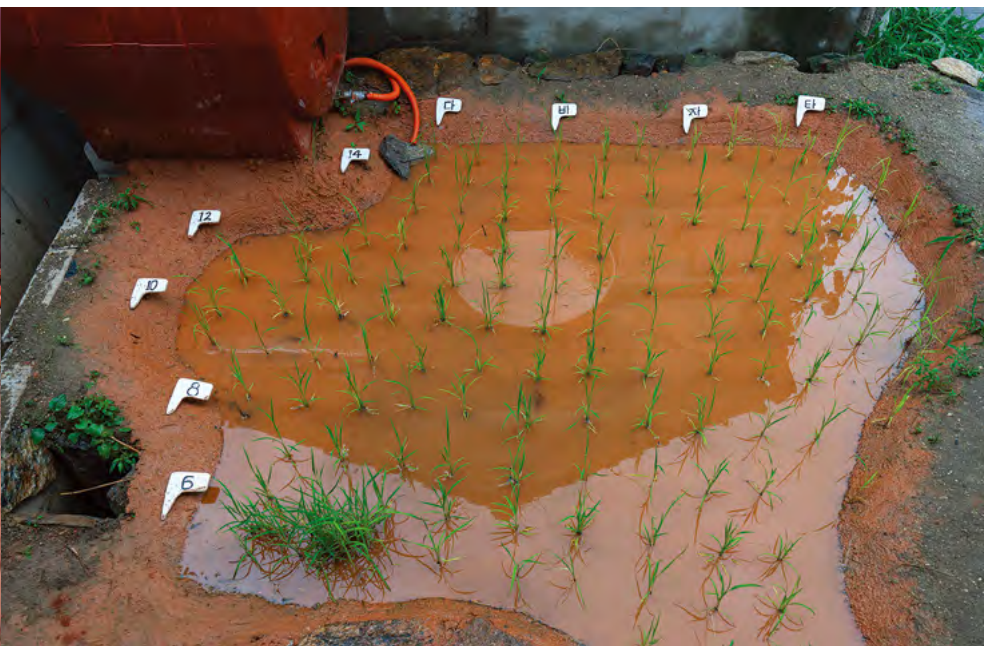


마치고 4일 아침 9시부터 모여 오전에 진행되는 라운드테이블을 준비하고 곧이어 1인 1모를 심는 모내기를 시작한다. 사전에 신청한 참가자들과 전주한옥마을을 오가는 현장참가자들 70여 명이 모여 모내기를 마쳤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

06.04_08.24

모내기가 끝나고 YouTube에 굳이백배미 채널을 만들고 모내기에서 수확까지 라이브방송을 시작했다. 고작 CCTV화면을 중계하는 것이지만 논돌봄이인 나는 아니 청개구리가 된 나는 논 의 물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만 했다. 한참후에 자기가 굳이백배미였으면 좋겠다는 아내의 엉뚱한 놀림을 받을 때까지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 했고 하루에도 몇번씩 스마트폰으로 전송되는 굳이백배미를 살펴야 했다. 모내기를 하면서 우리는 모의 좌표가 표기된 보증서를 발행했기에 혹여라도 자신의 모를 궁금해하는 이가 있다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논둑위에 좌표푼말을 만들어 두었다. 모내기하고 얼마 되지않아 아직까지는 확인이 가능하지만 25cm 간격으로 심어진 모들이 자라면 이조차도 어렵겠지만 어쨌든 푼말을 설치하고 화면에 그리드선까지 추가해 두었다.





멧돼지논과 우렁이 4마리

06.06_07.20

6월 6일 뭍뚱이 틀논이라 부르는 멧돼지논에서 모내기
참여하고 토종쌀 500g을 손에 들고 우렁이 4마리를 굳이백배미로
강제 이주시켰다. 뭍뚱이 부르는 틀논은 일반적인 논처럼 논
전체에 물을 가두지않고 고랑에만 물을 가두는 형태의 논이며
경운을 하지않는 논이다. 논에 물대기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풀이 자라지 못하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인데 그에 비해
틀논은 밭처럼 김매기를 해주어야 하는 단점이 생기지만 뭍뚱은
고집스럽다. 우렁이 4마리는 다행히 이주에 성공했고 잘 자라는
듯하다.

7월 5일 모들 사이로 어디에서 부터 따라왔는지 아니면
바람에 실려왔는지 알 수 없지만 생기발랄한 개구리밥이 가득하다.
그 사이로 우렁이가 한 마리 발견되었다. 오늘이 되기까지 수없이
물이 빠지고 물대기가 지속되었지만 우렁이는 다행히 살아있다.
모들은 무럭무럭 자라서 40cm 정도의 키가 되었고 20일경에는
60cm 정도로 자랐다.

보리벼꽃 보던 날

08.08

8월 8일, 이삭이 패고 벼꽃이 개화했다. 나는 처음으로 이삭에



밥알처럼 붙은 벼꽃을 본다. 이제야 ‘예쁘다’는 감탄사가 비로소 가치를 가진다. 벼꽃을 먼저 틔운 이삭은 보리벼인데 핑크빛 까락(끝잎 잎새)을 가지고 있고 아마도 쌀의 색깔도 비슷하리라 상상해본다. 멧돼지찰의 까락은 검정색이라는 데 언제 나올지 정확하지 않다.

남부지방에서는 낱알이라 부르는 벼씨가 되는 과정을 조금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자면, 이삭이 벼의 끝잎 잎집 밖으로 나오는 현상을 이삭이 뚫다고 하는데 이삭이 뚫고 나면 이삭꽃을 싸고 있는 큰 겹질과 작은 겹질이 열리면서 수술 꽃밥이 밖으로 나오는 데 이를 벼꽃의 개화라고 부른다. 개화시간은 고작 1~2시간 정도라고 한다. 4~5시간 동안 씨방에서 자가수분과 중복수정을 거치면 낱알(벼씨)이 된다. 우리가 먹는 쌀은 열매가 아니라 벼의 씨앗이다.

멧돼지찰 이삭이 뚫다.

08.15

8월 15일 보리벼와 멧돼지찰은 90cm 정도 자라났고 보리벼는 벌써 고개를 숙이고 있다. 멧돼지찰이 이삭이 뚫는 시기는 보리벼보다 약 한 달정도 차이가 난다고 한다. 9월 6일 멧돼지찰의 선명한 검정색 까락이 돌아나고 이삭이 뚫다. 벼꽃이 피었으니 곧 멧돼지찰도 낱알을 품게 될 것이다. 멧돼지찰은 보리벼에 비해 키는 약 30cm 정도 더 크고 두꺼운 줄기를 가지고 있다.





쓰러진 벼들을 묶다

09.16

9월 16일 이삭을 가득 머문 상대적으로 키가 큰 토종벼들이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고 땅힘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러는지 힘겹게 벼들이 버티고 있다. 19일 결국 3~4개 포기씩 벼들을 묶어준다. 슬슬 추수를 생각할 때가 된 듯하다. 곧이어 추수관련 회의를 제안하고 10월 22일을 추수날로 잡았다. 모내기를 같이 했던 공동경작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다시 포스터를 만들고 벧짚리스만들기 워크숍을 함께하고 추수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낮들고 벼베기

10.22

10월 22일 순조롭고 즐겁게 낮들고 베 벼기를 마쳤다. 추수를 마친 벼들은 대나무로 만든 벧덕에 걸어두고 건조를 시작한다. 맑풍은 건조되는 벼들을 ‘꿈꾸는 벼’ 또는 ‘별 헤는 밤’이라 부른다.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낱알은 도정을 마치면 쌀이 되겠지만 동시에 씨앗이다. 그래서 맑풍은 건조되는 벼들은 모가 되고 벼꽃이 피고 이삭이 맺히는 꿈을 꾸는 중이라는 것이다. 2주 정도 벼들을 꿈꾸게 하고 탈곡을 준비한다.





건조, 탈곡, 탈망

10.23_11.15

처음 해보는 벼농사는 매년 물음의 연속이다.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니 짐작해보거나 물어보는 수밖에. 씨레질, 모내기, 물관리 등도 그렇지만 탈곡은 더욱 어려운 일이었다. 베어진 벼를 언제까지 말려두어야 하는지? 잘 말려진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도대체 아는 바가 없다. 결국엔 11월 8일 탈곡을 시작했다. 탈곡은 아침부터 마트를 돌며 도끼빋을 찾는 일로 시작되었고 3개 정도의 마트를 거친 후에 두 종류의 빋을 구입했다. 굳이백배미 한켠에 가마니를 깔아두고 빋을 이용한 손 탈곡을 한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빋의 쓸모를 의심하게 되었고 맨손 탈곡으로 바꾸고 대략 3시간을 소요해서 탈곡을 마쳤다. 이어지는 다음 작업은 낱알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낱알을 분리해주고 까락을 털어내는 탈망작업이다. 낱알을 손으로 일일이 비벼서 분리해주고 바람을 이용해서 까락과 쪽정이들을 제거해준다. 탈망까지 마친 낱알은 대략 5kg 정도 된다. 이제 도정작업만 남겨두었다. 잠깐의 생각이지만 탈곡작업도 쌀밥짓기 단계에 포함해서 함께하는 게 좋을 듯하다. 심심하다.



쌀이 되다

11.21

11월 21일 오전에 무등산 자락에 자리잡고 있는
맘똥작은정미소로 향한다. 구들장논을 만났던 첫번째에 이어
두번째 방문이다. 구들장논을 알게 되고 난 1년 후에 나는 탈곡을
마친 낱알 5kg을 들고 정미소를 찾는다. 처음 보는 도정기에서
껍질이 벗겨진 쌀들이 쏟아져 나오고, 곧이어 돌을 고르는 작업을
마무리하면 우리가 먹는 쌀이 된다. 보리벼와 멧돼지칼이 섞인 쌀
1.1kg과 돌이 섞였다고 추정되는 0.5kg의 쌀이 생산되었다. 이제 다
함께 모여 어떻게 먹을 것인지 의논할 때이다.

2모작하는 굳이백배미

11.23

추수가 끝나고 벼짚만 가득한 굳이백배미에 12월 8일 호미를
파종했다. 벼짚을 걷어내고 논이 흙은 고르게 펴고선 호미 씨앗을
흩뿌려준 다음 벼짚을 골고루 덮어주고 뒤돌아 나온다. 호미는
언제쯤 싹이 나올까?

쌀밥 지어 밥먹는날

12.05

12월 5일 이른 아침부터 우리는 광주문화재단 2층 모모홀에서

쌀밥짓기 마지막단계인 밥먹는날 행사를 준비한다. 비로소 1년의 농사에서 얻은 쌀로 밥을 지어 먹을 순간이 왔다. 쌀밥짓기 밥먹는날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지만 밥먹는날에서 나는 씻나락까먹기를 잊을 수가 없다. 밥먹는날 4시간의 행사동안, 30여명의 참가자들은 씻나락(토종쌀 멧돼지쌀 나락)을 까고 있다. 전문용어를 빌리면 도정작업을 손으로 하고 있는 중이다. 강의에 집중하는 순간에도, 옆사람과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도, 사색에 잠길 때에도 행사가 끝나가는 때에도 씻나락을 까고 있다. 충동적으로, 단지 재미있을 것 같다는 단순한 이유로 시작된 ‘씻나락 까먹기’는 행사의 전과정을 가로지르며 일시적 공동체의 감각을 자극했다. 행사가 끝나고 뒷풀이에서 나는 20인이상이 모이는 모든 행사에 ‘씻나락 까먹기’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해 본다.

호밀 싹 틔우다

2024.01.15

11월 23일 파종해 두었던 호밀이 싹을 틔웠다. 추운 겨울 동안 보온을 위해 덮어 두었던 보리벼와 멧돼지쌀 벼짚이 무색하게 올해의 겨울은 너무 따뜻하다. 2024년 6월쯤 호밀을 수확하고 두번째 모내기를 준비할 예정이다. 굳이백배미 공동정작에 함께 하실 분들은 손 들어 주시라.



꿈꾸는 벼 별 헤는 밤

맑동

씨앗이 되는 꿈 그 무엇의 생명을 잇는 에너지가 되는 꿈

도심 한복판 전주한옥마을에 구들장논이 만들어졌다.
사용자공유공간planC의 8㎡ 작은 공간. 보라색 까락이 빛나는
보리벼와 검은색 까락이 빛나는 멧돼지찰을 심었다. 사람들이
관광·쇼핑을 하다가 뜬금없이 논을 만난다면 어떤 상상을 하게
될까.

별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벼가 자라는 구들장논은 꿈꿀
때의 이야기를 공유한다. 너무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때 우리는
꿈을 꾸지만 잘 기억하지 못한다. 어떨 땐 꿈조차 꾸지 못했다
느낀다. 벼도 마찬가지다. 벼는 건조가 되면서 휴면기에 들어간다.
잠을 잔다.³⁾ 하루 이틀 만에 기계로 뜨겁게 잠 들어버리는 벼는
꿈을 꾸지 못한다. 벼나 우리나라 꿈을 꾸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3) 벼가 잠을 잔다는 의미- 「모내기 하는 날, 구들장논에 출몰한 군이 10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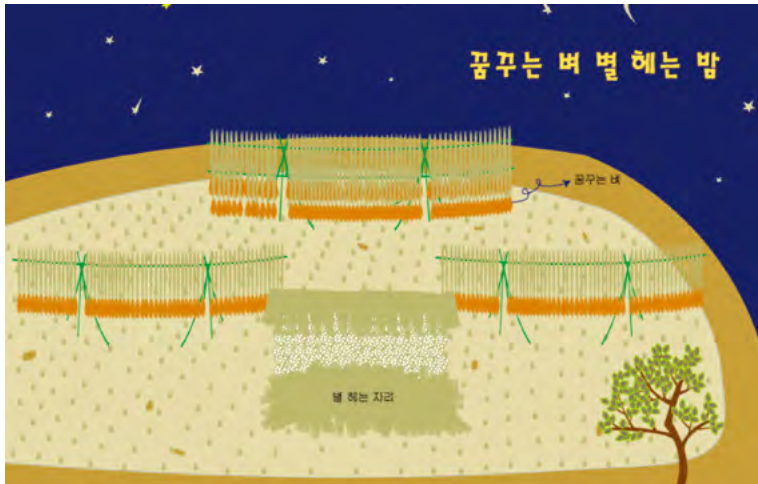


계단식으로 형성된 구들장논에 형형색색 다양한 토종벼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상상했다. 토종벼들은 낱알 꼬트머리에 뾰뾰한 수염처럼 뽀얀 까락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14년 벼터를 세우고 벼단을 묶고 엮어 벼를 거꾸로 걸어 건조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을 때였다. 작업이 낮부터 저녁 늦게까지 진행되었다. 해와 달이 교차하며 어둠이 짙어지려 할 때 짙은 달이 떠올랐다. 깊어지는 어둠을 달빛이 희석하며 만들어 낸 푸르스름한 분위기는 가슴에도 무언가를 차오르게 했다. 돌아보니 그렇게 가슴에 토종 벼씨를 품게 되었던 것 같다.

일상에 지쳐 집에 오면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잠을 자더라도 쉽게 잠에 빠져버린다. 깊은 잠에 빠지기 전 흐리멍덩한 비몽사몽의 기간, 시간에 꿈이 온다. 우리나라 벼나 그 기간, 시간이 필요하다.

벼를 낮으로 베고 지푸라기를 서너 가닥으로 묶고 엮어, 대나무로 세운 벼덕에 벼를 거꾸로 걸어 2주일 정도 건조시키는 일이 비몽사몽의 기간, 시간을 만드는 일종의 의식이었음을 문득 깨달았다. 이백 평 논에 벼를 수확하고 여섯 시간 동안 이루어진 이백아흔여덟 번의 반복된 묶음과 엮음과 걸침, 그리고 걸음이 휴면기에 들어가는 벼를 위한 의식이었음을 짙은 달이 떠오르는 순간 가슴에 새겨졌다. 블랙홀처럼 깊게 빨려 들어가는 어둠 이후에 화이트홀처럼 폭발적으로 확장돼 퍼져나가는 무한 창조의 세계를 달빛이 몽롱하게 비춰줬다. 벼가 잠든 이후에 벌어지는 벼의 무의식의 세계에 서 있는 것 같았다.

벼는 그렇게 꿈꾸는 시간으로 들어간다. 가을 햇살에 천천히 잠들어 가는 벼들은 바스락댄다. 여기에 바람은 사르륵 소리를 덧댄다. 이 벼들에게서 뽕으면서도 쓰고 달달한 신맛을 내는, 이제 막 걸러낸 막걸리의 향이 난다.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 밤의 반짝이는 달빛과 별빛은 잠들어 가는 벼에 닿아 달콤구수한 불을 지펴버릴 것만 같다. 벼가 잠드는 가을밤은 꿈꾸기에 딱 좋은 분위기를 자아낸다.



꿈꾸는 벼 별 헤는 밤: 깊은 잠에 빠지기 전 흐리멍덩한 비몽사몽의 기간, 시간에 꿈이 온다.



토종벼. 같은 듯 다르다. 벼 낱알 색이 같더라도 까락 색이 다르다. 벼 낱알과 까락 색이 같더라도 현미 쌀알 색, 멥쌀인지 찰쌀인지가 다르다.

벼는 그렇게 잠에 빠져들며 씨앗이 되는 꿈을 꾸다. 또 벼는 잠에 빠져들며 그 무엇의 생명을 잇는 에너지가 되는 꿈을 꾸다.

빼앗기고 잊혀진 꿈들

농부들은 자신이 가진 법씨를 봄이 되면 매년 잠에서 깨웠다.⁴⁾ 그렇게 이어져 왔던 1,450여 종의 벼는 근대화 과정에서 사라져 갔다. 그 와중에 450여 종만이 냉동고에 보관되어 농부들에게서 격리되었다. 이 법씨들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농부의 입장에서 이 과정을 시대상으로 정리하자면

- ▲ 씨앗의 시대
- ▲ 빼앗긴 씨앗의 시대
- ▲ 잊어버린 씨앗의 시대
- ▲ 꿈꾸는 씨앗의 시대라 할 수 있겠다.

씨앗의 시대를 넘어가는 근대화의 과정에서 농부는 어떻게 씨앗을 빼앗기게 되었는가. 식민지 전쟁이 난무하고 그 전쟁을

4) 벼가 잠을 잔다는 의미- 「모내기 하는 날; 구들장눈에 출몰한 굳이 100」 참조

뒷받침하기 위해 쌀의 수확량은 늘어나야만 했다. 지역마다의 토양과 기후에 맞춰 적응된 벼씨들은 과학과 기술에 의해 개량된 새로운 벼씨들로 대체되기 시작했다. 토양마다 지닌 특성과 양분은 화학비료 등을 통해 극복될 수 있었다. 그래서 토양과 기후의 고려 없이 어디든 수확량이 많은 벼를 심게 할 수 있었다. 각 지역에서의 농부들이 유지해 왔던 벼는 이때부터 빼앗기고 서로 격리되기 시작했다. 빼앗긴 씨앗의 시대는 우리나라에서는 일제강점기의 시기다.

8·15 광복 이후 굶주림 속에서 진행된 근대산업사회로의 진전의 시기에는 빼앗긴 씨앗을 되돌아보기보다는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한 벼의 육종이 중요했다. 그렇게 통일벼가 나오게 되었다. 빼앗긴 씨앗의 시대에 벼 육종은 일본의 주도로 진행되었다. 광복이후 육종된 통일벼는 국가차원에서 굶주림도 해결하고 벼 육종에 있어 일본으로부터 독립했다는 시대적 의미가 컸다. 문명으로 깊어지는 근대산업사회는 농부들이 농지를 떠나 산업사회의 일꾼으로 나아가게 했다. 이번엔 씨앗으로부터 농부들이 격리되는 과정이 되었다. 그리고 씨앗을 이어온 농부의 자리에 과학과 기술이 자리했다. 그러면서 씨앗은 독점하는 자본이 되었다. 잊어버린 씨앗의 시대는 빼앗긴 씨앗을 위와 같은 과정에서 잊어버리는 시기이다.

그리고 지금. 냉동고에 잠들어 있는 벼씨와 농부가 다시 만나고 있다. 잊어버린 씨앗의 시대를 넘어가는 새로운 문명으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100년 전의 꿈을 100년 후의 농부가 깨운다. 100년 전 그 꿈은 숲과 개울로 둘러싸인 곳에서 꾸어졌지만, 그 꿈은 100년 후 높은 빌딩과 아스팔트로 둘러싸인 곳에서 깨어났다. 꿈꾸는 씨앗의 시대는 황당한 공간에서 씨앗과 농부가 뜬금없음으로 재회하는 시기이다. 이 시대에 오랫동안 깨어나지 못하고 있던 벼씨의 꿈과 만나는 방법은 무엇일까.

꿈의 공감

몽롱한 상태에서 꾸어지는 꿈. 우리는 벼가 꿈꾸지 못한 채 잠들게 하는 상황들을 생각해 볼 일이다. 잠들기 전 탈곡기에서 털어져나가는 벼, 크나 큰 통 안에서 따끈한 열기로 순간 잠에 굶아떨어지는 벼의 상황들. 우린 매끼니 한 공기의 밥을 바라보며 벼의 꿈에 공감해 볼 일이다.

쌀
-
밥짓기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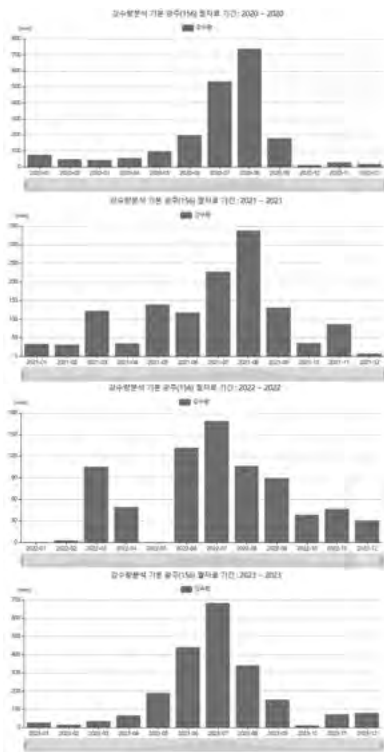
맑똥의 농사달력



도시에서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 같은 ‘쌀-밥 짓기’를 위해

수리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으면 장마가 시작되기 전까지 모내기하기에 물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조선시대에는 모를 옮겨심는 모내기 농법(이앙법)이 국가 차원에서 쉽게 허락되지 않았다. 조선 후기에 와서야 이앙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럼에도 조선시대 때 천수답(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논에 물을 담을 수 있는 논)이 전체 논의 70%를 차지했다. 이 때문에 비를 기다려 모내기를 했고, 늦어지면 장마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 이렇게 장마를 기다려 늦게 하는 모내기를 ‘마냥’이라 했다. 그래도 모내기를 못 할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조, 기장, 수수 등 대체 식량작물을 심었다. 우리나라의 토종벼는 이 기후 조건에 적응해 왔다.

현대문명의 최첨단을 달리는 도시에서 벼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이다. 더구나 도시에 ‘농(農)한 예술’을 위해 만드는 논은 천수답이다. 본래 우리나라 농부들은 이런 조건에서 벼농사를 지었지만, 현대문명은 농부들이 구축해 온 ‘토착 기술’을 잃어버리게 했다. ‘구들장논’은 그 ‘토착 기술’ 중의 하나다. 문명 대전환의 시기에 ‘토착 기술’은 생태와 맞물려 예술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이다.



최근 4년간 광주광역시의 월별 강수량 분포.

저수지를 통해 물 공급이 원활하게 수로 등이 형성(이하 수리시설)되어 있는 논이 아니면 논농사를 짓는 지역의 강수 패턴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보통의 강수 패턴은 4월말부터 6월 중순경까지 가뭄인 경우가 많다. 남도 지역의 경우 수리시설이 잘 갖춰진 논에서 모내기는 굳이 비를 기다릴 필요 없이 5월 중순에서 하순경에 시작한다.

‘농(農)하고 사회로운 예술실험’은 그 행위가 진행되는
곳의 강수 패턴을 잘 들여다보는 일부터 시작된다. 자연의
강수량 및 수리시설의 상황을 보고 모내기를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생태적일지를 판단한다.

쌀-밥 짓기를 위한 연간 캘린더

3월

겨우내 흙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응집력이 떨어져 있다.
이때 논둑이 무너지기도 한다. 논둑을 잘 살펴 보수작업을
진행한다.

4월

볍씨를 준비한다. 볍씨는 물에 담가 물 위로 뜬 것을 건져내
가라앉은 것을 볍씨로 쓴다. 가라앉은 볍씨를 다시 건져내 양파망
같은 곳에 담아 처마 등 그늘진 곳에 걸어두어 건조한다.

좀 더 튼실한 볍씨를 얻기 위해 염수선(소금물 비중 1.3으로
하여 가라앉은 것으로 볍씨를 골라냄)을 하지만 볍씨로 쓰기에
소금물이 아니어도 ‘쌀-밥 짓기’에서는 충분하다. 그럼에도
염수선을 하고자 한다면, 메벼는 물 20ℓ에 소금 5.0kg, 찰벼는 물

20ℓ에 소금 3.5kg 비율로 소금물 비중을 맞춘다.

5월

볍씨 소독과 못자리(싹 틔운 볍씨를 모내기 전까지 키우기
위한 자리로 그 시기는 모내기 전 30일로 계산). 5월이 되면
늦서리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보온을 위해 비닐 등을 쓰지 않고
모를 키울 수 있다. 기후를 잘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농사는 좀 더
생태적일 수 있다.

6월

모낼 논의 씨레질을 하고 모내기를 한다. 좀 더 생태적인
실천을 위해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에 맞춰 모내기 날을 정한다. 6월
21일 하지를 기점으로 앞뒤 5일 범위에서 정하는 것이 좋다. 모내기
3일 전에 한 삽 깊이로 논 전체를 골고루 뒤집고 삽으로 흙을 잘게
조각낸(흙을 썬다) 후 물을 대고 발로 잘근잘근 밟아 덩어리진 흙이
풀어지게 물 반죽을 한다.

7월

김매기하는 시기이다. 최초 김매기는 모내기하고 15일이 지난
후이다. 풀이 막 싹을 틔워 올리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긴 막대가 달린 화장실 청소 솔로 논바닥 구석구석

빈틈 없이 문지르는 것이다. 풀 싹이 없더라도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15일 후 2차 김매기 또 15일 후 3차 김매기를 한다. 3차 김매기 후 모내기한 시점으로 약 45일이 될 때 논에 물을 완전히 뺀다. 논이 흠이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 갈라질 때까지 논을 말린다. 그리고 난 후 다시 물을 댈다.

8월

논 물관리와 논둑 풀 관리. 논바닥이 드러날 때 손가락 한 마디 깊이까지 물을 대준다. 그리고 논바닥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물을 대준다. 이를 계속 반복한다. 이 기간 동안 이삭이 패고 벼꽃이 핀다.

9월

늦은 벼들은 9월초 · 중순까지 이삭이 패고 벼꽃이 핀다. 그간 해온 논 물관리와 논둑 풀 관리를 이어간다. 이때 비가 많지 않아서 논에 물을 채울 수 없더라도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된다. 일부러 수돗물을 넣어 주지 않고 그 상황 그대로 관리해도 괜찮다.

10월

벼 베는 시기다. 이삭이 패고(논 전체의 80%가 이삭이 났을 때를 이삭이 팬 날로 정함) 45일 정도가 지나 베는 것이 밥맛을 가장

좋게 하는 때이다. 눈으로 확인할 때는 벼 이삭의 80~90%가 노랗게 여물었을 때이다. 벼 베기 15일 전에 논에 물을 완전히 뺀다. 그리고 물이 완전히 빠진 상태를 유지한다. 더 이상 물을 대주지 않는다.

11월

벼를 베고 건조하는 시기이다. 벼를 낱알로 털어 시멘트나 아스팔트 위에 포장을 깔고 이틀을 말린다. 또는 낱알을 털지 않고 벼 이삭이 땅에 닿지 않게 벧짚째 거꾸로 걸어 2~3주 정도 말린다. 이때 비가 오더라도 맞혀도 건조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벼 낱알을 툰다.

12월

벼를 털면 지푸라기 검불과 알곡이 차지 않는 벼 등을 날려 보내는 작업을 한다. 적은 양이면 키를 이용한다. 도는 선풍기를 틀어놓고 그 앞에 벼를 떨어뜨린다. 그렇게 선별된 벼를 소량 도정할 수 있는 곳에 가 벼 껍질을 까 쌀을 만든다. 쌀이 되면 이제 밥을 짓는다.

구들장 틀논 만들기



도심 자투리 땅에 자리한〈구들장 뜰논 굳이백배미〉의 원형은 청산도 구들장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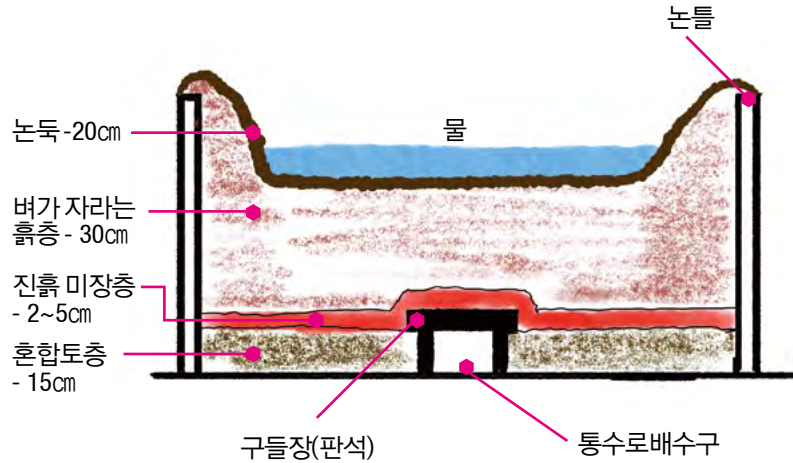
막동작은정미소
구들장 논만들기 영상보기

전남의 작은 섬 청산도는 모래가 대부분인 사질토양이어서 물이 쉽게 빠지고 영양분이 적다. 이 척박한 땅에서 벼농사를 짓기위해 청산도의 농부들은 한국의 전통 난방구조인 '구들(온돌)'을 논에 적용했다. 논의 가장 아래층에 20~50cm 높이로 석축을 쌓아 30~50cm의 수로를 만들고 그 위에 구들장을 얹고 구들장 사이를 진흙으로 매워 하부석축을 구성한다. 그 위로 혼합토층을 채우고 가장 위엔 벼가 자랄 수 있는 흙을 30cm 정도 채운다. 여러겹을 층으로 쌓는 이유는 흙이 충분히 물을 머금게 하기 위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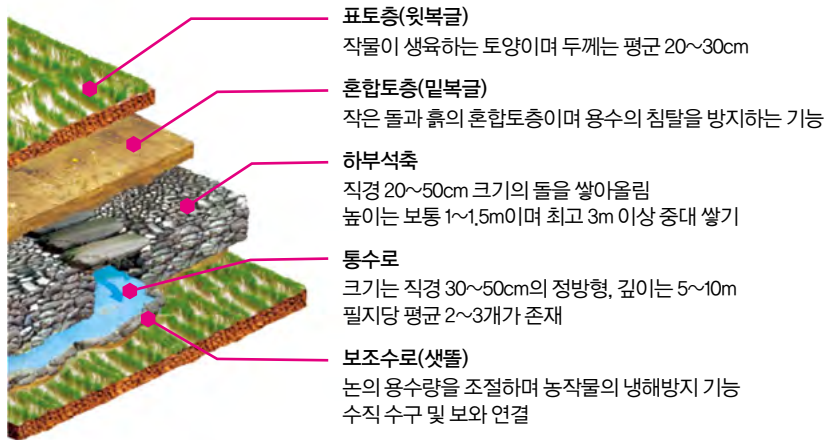
구들장논의 또 다른 특징은 관개시설이다. 일반 논은 논 주위를 둘러 관개시설을 만들고 논둑을 헐어 논에 물을 댄다. 구들장논은 구들장 아래로 만들어진 수로가 관개시설이다.

청산도의 구들장 논은 2014년 4월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됐다. 국제연합식량기구(FAO)는 세계 각지의 독창적인 농업유산을 보전하기 위해 13개국 31곳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했다. 청산도 구들장논은 www.gudeljangnon.co.kr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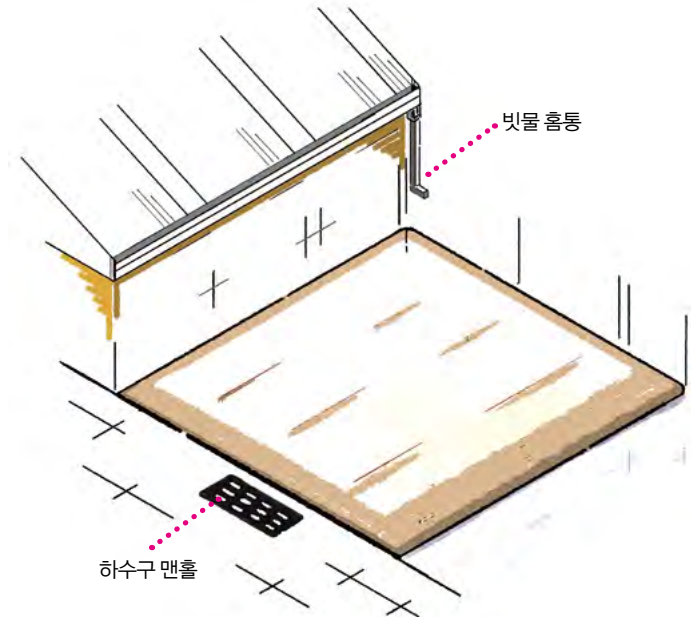
※구들장 틀논의 단면



※청산도 구들장논의 단면



1. 구들장틀논, 적당한 부지 찾기



-도심속에 자투리 땅 약 20㎡

(20㎡땅에 구들장 틀논을 만들면 실경작 면적은 60% 즉, 12㎡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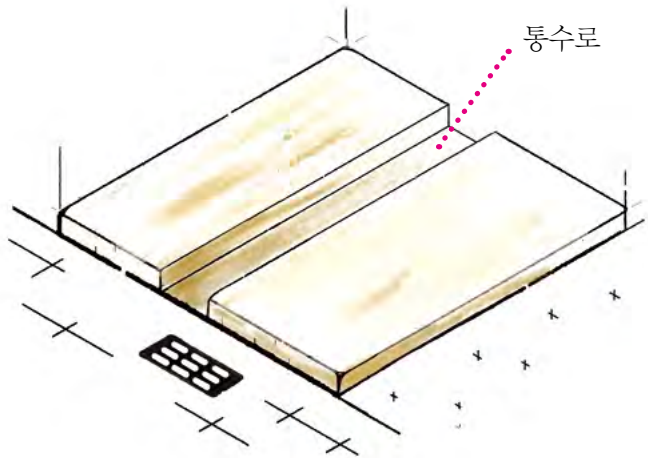
-남동쪽으로는 그늘이 지지 않는 곳, 특히 6~10월 동안 햇볕이 잘 드는 곳

-빗물저금통에 빗물을 모아 틀논에 공급이 가능한 곳.

(예 : 처마 밑, 빗물흡통 밑)

-하수구 맨홀이 가까운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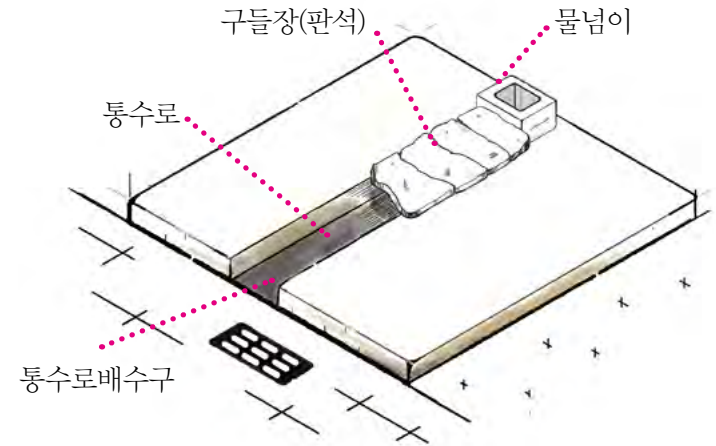
2. 통수로 만들고 터다지기



- 벽돌 등으로 폭 20cm 높이 15cm의 통수로를 만든다.
- 터다지기를 위한 흙을 통수로 양 옆으로 채우고 단단히 다진다. 이 때의 흙은 흙이나 자갈 모래가 섞여있는 흙이어도 좋다. 또는 도시에서 폐기되는 보도블럭을 이용해도 된다.

※굳이백배이의 경우 높이 30×60×15cm ALC블럭을 쌓아서 터를 다졌다.

3. 통수로 위에 구들장(판석)을 덮고 물넘이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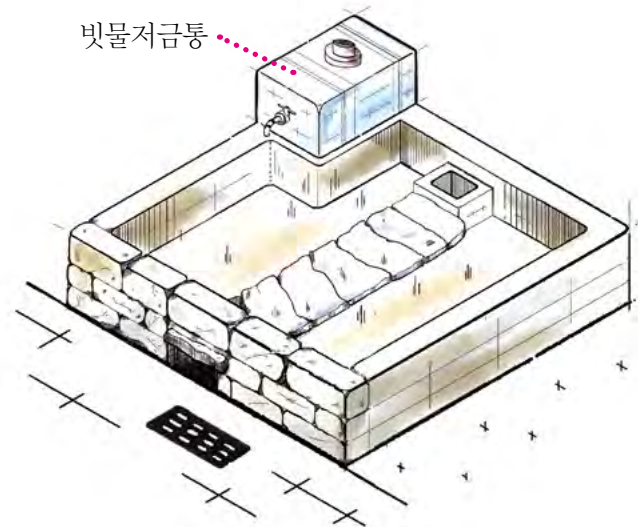
- 통수로 위에 구들장을 덮는다
- 논에서 일정 물이 차게 되면 물이 빠져나가는 물넘이를 만든다. 물넘이는 큰 돌이나 폐기된 보도블럭 같은 것으로 굴뚝을 올리듯 약40cm 높이로 쌓아올린다.
- 쌓아 올릴 때는 진흙으로 돌 사이를 메워주며 쌓고, 겉을 진흙을 발라 마무리 한다. 진흙은 돌을 접착시키고 물이 새어나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

4. 논틀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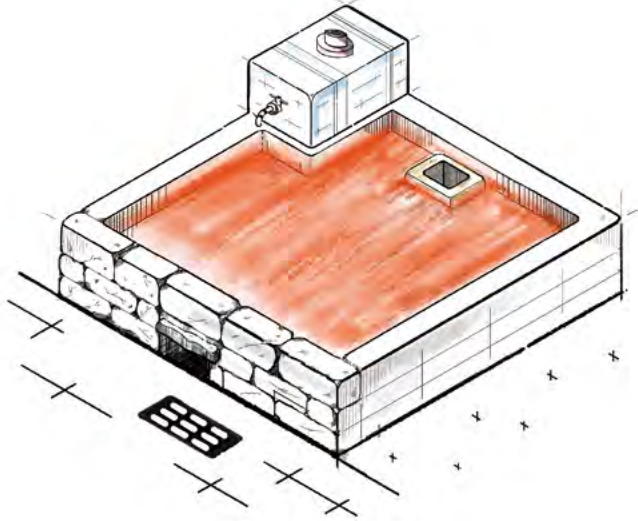
- 논 틀 재료는 벽돌, 나무판, 보도블럭 등으로 만들 수 있으며 논 틀의 높이는 약 60cm로 한다.
- 논 틀은 무너지지 않게 단단하게 고정해주고 틀논의 얼굴이 되는 통수로 부분은 아름답게 꾸민다. 이 때의 재료는 담돌이나 담장용 블럭을 이용한다.

5. 빗물저금통 설치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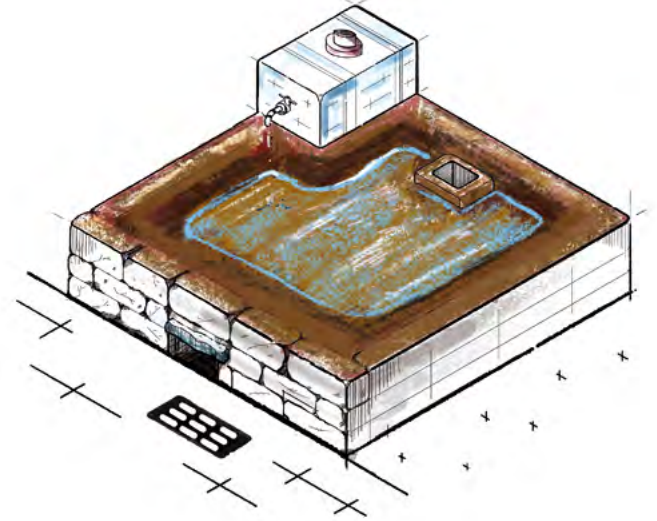
- 빗물저금통은 논 바닥보다 높게 자리를 잡아주는 것이 좋다.
- 빗물저금통은 빗물 받기가 원활한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빗물홈통과 가까이 있는 곳)
- 빗물저금통 용량은 논 규모 8제곱미터 당 1톤 정도가 적당하다.
- 빗물저금통은 파란색과 흰색이 보통인데 흰색을 사용할 때는 표면에 페인트칠을 해서 녹조가 끼는 것을 방지해주어야 한다.
- 빗물저금통 아래쪽에는 구경 30~50mm의 수도꼭지를 달아준다.
※굳이백배미는 논 틀 위에 설치했다.

6. 논바닥과 논틀 미장하기



- 논 바닥과 논 틀 미장은 진흙(황토, 옹기토 등 이용가능)으로 한다.
- 미장은 논에 물을 오래동안 잡아두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작업이다.
- 전체적으로 2~5cm 두께로 미장한다.
- 미장한 논 바닥과 논틀을 하루 정도 말리고 벼가 자라는 흙을 넣어준다.
논흙을 구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 어렵다면 황토를 구입해서 넣는다.
- ※ 논틀 미장하기는 154,155쪽 참조

7. 벼가 자라는 흙 넣고 논둑(물막이 둑)만들기



- 논에 들어가는 흙은 논 틀을 포함한 전체 면적×40cm를 곱해서 흙의 양을 가늠한다. (1㎡=1루베=약1톤)
- 이 흙으로 논 둑도 만드는데 논틀을 포함해서 폭이 약 30~40cm로 만들어준다. 논둑의 높이는 논 바닥에서 20cm 높이로 만든다. 논둑을 만들때는 삽이나 발로 다져주면서 형성한다.
- ※ 굳이백배미의 경우 14m2 X 40cm 에 5톤 정도의 흙이 들어갔다.
- ※ 벼를 키우려면 논에 물을 가두어야 한다. 논바닥과 논틀을 미장하긴 했지만 논둑도 미장을 해야 물이 잘 가뒀진다. 이를 농사 용어로는 “논둑 붙이기”라 한다. 이는 써레질 할 때 진행하면 된다.
- ※ 써레질은 148-152쪽 참조

넉고게임



넙고게임

- ① 한정된 게임 시간: 1분
- ② 쌀에 섞여 있는 '넙'을 골라낸다.
- ③ 골라낸 '넙'을 네모 칸에 넣는다.
'넙'가 네모 칸을 벗어나지 않게 한다.
- ④ 1분 안에 23칸의 네모 안에 '넙'을 찾아
모두 채우면 '넙고'라고 외친다.
- ⑤ '넙고'를 빨리 외치는 사람이 승리한다.
- ⑥ 1분 안에 네모 안에 '넙'을 다 채우지 못해,
'넙고'가 나오지 못했을 때
네모 칸에 가장 많은 '넙'을 채워놓은
사람이 승리한다.

*주의:승리의 요건

- '넙'가 네모 칸의 선을 벗어나면 실격

-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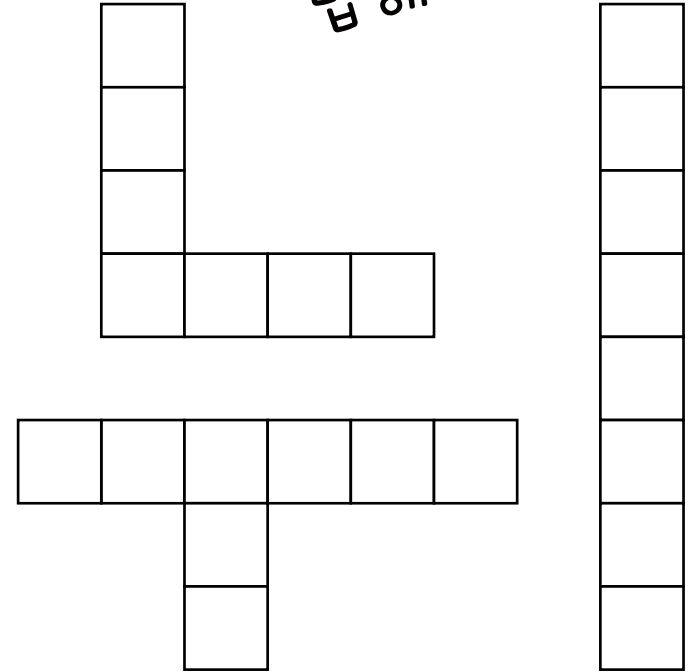


인정



실격

넙 골라야
밥해 먹치



넙 : 찢지 않아서 겉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채,
쌀 속에서 섞여 있는 벼알갱이



넙고판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넙고 게임은 ‘넙’를 골라내는 게임이다. 옛날 절구나 디딜방아로 벼를 찧어 벼 껍질을 까내 쌀을 만들었다. 그때 벼 껍질이 까지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이 있었다. 그것을 ‘넙’라 한다. 현재는 도정기라는 기계로 벼 껍질을 까 쌀을 만들어 낸다. 이 기계도 현미 전용기가 아니면 현미 쌀에 ‘넙’가 섞여 나온다. 현미 전용기에는 ‘넙’를 선별하는 판이 있다. 이 판이 흔들리면서 ‘넙’를 한쪽으로 모은다. 매끈한 용기보다는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용기에 넙가 섞인 현미를 넣고 뱅뱅 돌리면 넙가 가운데로 둥그렇게 모인다. 이와 비슷한 원리다. 이렇게 모아진 ‘넙’는 도정기에서 벼 껍질을 까는 곳으로 다시 들어간다. 그리고 벼 껍질이 까진다. 이를 몇 차례 반복해 넙가 없는 현미가 만들어진다. 농가 가정에 보급되고 있는 도정기는 넙를 선별하는 판이 없다. 이 도정기는 백미 전용이다. 그래서 농가 보급 도정기로 현미를 뽑으려 할 때 넙가 섞여 나온다. 농가 보급형의 현미 도정기는 백미 도정기에 비해 4~5배 정도 비싸다.

넙고 게임은 ‘백미’가 아닌 ‘현미’를 겨냥해 만들어진 게임이다. 굳이 ‘현미’를 특정한 이유는 오른쪽의 표와 같다.

완전식품이라 일컬어지는 계란과 우유에 비해 현미가 더 완전식품이다. 계란은 칼로리 비율로 단백질이 31.8%, 지방이 68.2%를 차지하고 탄수화물은 전혀 없다. 우유는 칼로리비율로

현미와 백미의 영양소 비교 (100g 기준)

영양소	현미	백미
단백질(g)	7.2	6.5
지방(g)	2.5	0.4
탄수화물(g)	76.8	77.5
섬유질(g)	1.3	0.4
칼슘(mg)	41	24
철(mg)	2.1	0.4
치아민(mg)	0.54	0.12
리보플라빈(mg)	0.1	0.05
니코틴산(mg)	5.1	1.5
토코페롤(mg)	1.0	0.2
피틴산(mg)	2,400	41
열량(kcal)	359	340

『병 안 걸리는 식사법 현미밥 채식』 황성수(신경외과 전문의)지음에서 발췌

단백질이 20%, 지방이 52%, 탄수화물이 28%로 구성되어 있다.

넙고 게임은 쌀의 영양소를 온전하게 먹자고 제안한다. 현미를 먹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주식인 쌀(현미)이 입으로 들어오기까지의 수고로움을 담아내고 있다. 그래서 게임 이후에 넙를 잘 골라내는 사람들에게 현미를 상품으로 제공한다. 넙고 게임에서는 다른 상품들보다도 현미를 상품으로 주는 것을 권장한다.

넉고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각각 참가비를 낸다. 게임 주최자는 그 참가비로 현미를 구입한다. 그렇게 모은 현미는 게임을 통해 낚을 잘 골라낸 사람의 순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상품으로 제공된다. 게임은 토너먼트로 진행되는데 최소 16강부터 진행하는 것이 좋다.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토너먼트	게임 참여비	게임 승리로 얻은 것	진출시 합계	게임 참여로 남는 것	탈락시 합계	상품	상품 수량 인원
64강	1(개)	2(개)	2(개)	0(개)	0(개)	0	0(명)
32강	2(개)	4(개)	4(개)	0(개)	0(개)	0	0(명)
16강	3(개)	6(개)	7(개)	1(개)	1(개)	1(500g)	8(명)
8강	4(개)	8(개)	11(개)	3(개)	3(개)	3(1.5kg)	4(명)
4강	5(개)	10(개)	16(개)	6(개)	6(개)	6(3kg)	2(명)
결승	6(개)	12(개)	22(개)	10(개)	10(개)	10(5kg)	1(명)
우승			22(개)			22(11kg)	1(명)

넉고게임 참가비와 상품 배분

- 참가비 토종쌀 기준 500g은 5,000원. 참가비는 쌀의 양을 얼마로 할 것인가에 따라 주최측이 조정하면 됨
- 64강을 예시로 500g 토종쌀이 64개로 총 32kg의 상품이 걸려있음
- 위 표에서 상품의 숫자는 500g 단위의 토종쌀을 나타냄

벗짚 리스 만들기



고개 숙인 벼를 베어 탈곡하고 나면 벼짚이 남는다. 초가지붕 아래 살던 시절엔 벼짚을 엮어 지붕도 만들고 새끼를 꼬아 짚신이며 바구니 같은 생활용품으로 활용했지만, 도시 논의 벼짚으로 요즘 일상에 필요한 무언가를 만들 수 없을까 생각하다 나온 것이 리스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리스를 걸어두는 카페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그 낭만적인 감성이 좋아 하나쯤 장만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 적이 있지 않은가!

우리나라에서는 벼짚으로 새끼를 꼬아 금줄을 두르는 풍습이 있었는데 샷된 기운을 쫓고 행운과 복을 기원하기 위함이었다. 서양의 리스 역시 영원함, 생명의 순환, 행운과 같은 의미로 대문 앞에 걸어두니 추수 후 벼짚으로 리스를 만들며 다가올 새해의 안녕과 행운을 기원한다면 좋을 것이다.

준비물

1. 벼짚 : 충분히 건조된 벼짚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2. 라피아 : 아프리카 식물로 벼짚을 리스틀에 고정시킬 때 천연 끈으로 사용한다. 세줄기씩 한꺼번에 사용해야 내구성이 있으며 분무기로 물을 뿌려가며 사용하면 탄성이 생긴다. 리스에 풍성한

리본을 달고 싶을 때 예닐곱 줄기를 사용하면 된다.

3. 전지 가위 : 라피아를 길이에 맞게 자를 때, 소재들을 자를 때 필요하다.
4. 넝쿨리스틀 : 직경 25cm, 30cm, 35cm 등 다양한 크기가 있다. <요리와 이야기>팀이 사용한 틀은 30cm 틀이다.
5. 3가지 소재(스쿠아 갈대, 억새 갈대, 다이브) : 추수하는 가을의 느낌을 물씬 느끼게 하는 3가지 소재이다. 벼짚 리스에 볼륨감을 부여한다.



1. 탈곡 후 갈무리 한 벼짚을 준비한다.



2. 벼짚을 한 움큼 쥐어 머리를 땡는다. 벼짚을 세 갈래로 가르고 시작하면 되는데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서 꼬트머리를 번갈아 잡아주면 좋다. 벼짚을 살짝 당겨가며 땡으면 느슨할 때보다 더 잘 땡아진다. 세 갈래 땡는 법이 어려우면 두 갈래로 땡아도 괜찮다.



3. 땡은 벼짚의 끝을 라쿠아로 묶어준다.



4. 라쿠아를 이용해 땡은 벼짚을 넝쿨리스틀에 둘러서 고정시킨다. 전체를 둘러도 되고 1/3 또는 2/3를 둘러도 된다. 이삭이 달렸던 부분은 자연스러운 맛이 있고 줄기 부분은 가지런하니 그 점을 생각하며 디자인하면 된다.



5.스쿠아 갈대, 억새 갈대, 다이크 각각 3줄기씩 준비하고 땀은
 벗짚 사이사이에 꽂아가며 볼륨감을 만든다. 길이는 전지 가위를
 이용해 디자인에 맞게 조절한다.



씻나락 까먹기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와 '쌀튀기기'

테이블 위에 나락 한 그릇이 있다. 귀신 씨나락 까먹는 체험을 해 보는 거다. 끝날 때쯤 쌀을 볶으면, 이걸 매통은 팝쌀이라고 하는데, 팝콘처럼 된다.



1.씻나락 한줌, 두 줌, 세 줌
욕심껏...

2.열심히 까면 된다. 까다보면
요령이 생긴다. 쌀눈(?)의
결집질의 방향으로
벗겨내면 된다.

3.대신 손톱에는 무리가 갈 수
있다.(도구를 사용하면 좋다.)



4.쌀튀기기 - 까 놓은 나락을 한데 모아 약한 불에 살살 볶듯이 열을
가하면 어느 순간 눈꽃처럼 팍, 팍, 팍 소리를 내면서 구순내와
함께 신기하게 하얀 꽃이 피어오른다.

5.순식간에 튀어오르니 불조절이 필요하다. 튀기는 것과 다른
것이라면 기름을 두르지 않고 마른 쌀을 오로지 열로만 가하여
팝콘처럼 튀겨내는 것이다. (쌀의 마른 정도에 따라 잘 튀겨지는
것과 아닌 것이 섞여있을 수도 있다.)

6.구순내가 일품이다.

7.이제 맛있게 맛보면 된다. (혹여나 튀밥 기기에 그러니까
팽튀기기에 넣어 보면 어찌 될까? 궁금해 진다.)

우리 말(속담)에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한다." "가난한 양반 씨나락(씨나락) 주무르듯 한
다." 등의 말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씨나락(씻나락)'은 표준어가 아니라 방언이다.
못자리에 치는 벼의 씨를 '볍씨'라고 하는데 '씨나락' 또는 '씻나락'은 전라도 지방에서 쓰는
볍씨의 방언이다.